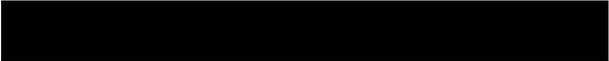


09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arts change the world 

인사미술공간

운영방안

설정 연구

/ 2020. 3



인사미술공간 운영방안 설정 연구

2020년 3월 27일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 및 편집 아카이브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전화 061-900-21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http://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mailto: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기 바랍니다.



## 인사미술공간 운영방안 설정 연구

2020.3.

## 제출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중

본 보고서를 “인사미술공간 운영방안 설정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주관기관: 아카이브봄

연구자: 윤율리, 김나현

보조연구자: 이지우

## 목차

### 제1장 연구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          |    |
|----------|----|
| 1. 연구 배경 | 10 |
| 2. 연구 목적 | 12 |

#### 제2절 연구 방법

- |                  |    |
|------------------|----|
| 1. 기초 자료 및 문헌 연구 | 14 |
| 2. 인터뷰 및 기타 사례   | 14 |

#### 제3절 연구 추진 계획

- |           |    |
|-----------|----|
| 1. 진행과 보고 | 16 |
| 2. 세부 일정  | 16 |

### 제2장 인사미술공간 운영 현황

#### 제1절 초기 현황

- |              |    |
|--------------|----|
| 1. 설립 목적과 배경 | 18 |
| 2. 설립 초기와 연혁 | 18 |

#### 제2절 운영 현황

- |                  |    |
|------------------|----|
| 1. 인사미술공간의 현재    | 20 |
| 2. 전시 사업         | 22 |
| 3. 전시 외 사업       | 25 |
| 4.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 | 25 |

#### 제3절 소결 - 인사미술공간 운영의 성과와 한계

### 제3장 인사미술공간에 관한 기존 연구들

#### 제1절 조사 개요

- |           |    |
|-----------|----|
| 1. 목적과 설계 | 29 |
| 2. 조사 범위  | 29 |

#### 제2절 조사 내용

- |              |    |
|--------------|----|
| 1. 문헌 그룹 1   | 31 |
| 2. 문헌 그룹 2   | 36 |
| 3. 기타 연구 자료집 | 40 |

#### 제3절 소결 - 인사미술공간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쟁점들

## 제4장 인터뷰 및 사례 조사

## 제1절 FGI 조사

- |           |    |
|-----------|----|
| 1. 목적과 설계 | 46 |
| 2. 그룹 1   | 47 |
| 3. 그룹 2-1 | 50 |
| 4. 그룹 2-2 | 53 |
| 5. 요약     | 53 |

## 제2절 해외 대안공간 사례 조사

- |           |    |
|-----------|----|
| 1. 목적과 설계 | 57 |
| 2. 조사 내용  | 57 |

## 제3절 국내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조사

- |           |    |
|-----------|----|
| 1. 목적과 설계 | 62 |
| 2. 조사 내용  | 62 |
| 3. 요약     | 74 |

## 제5장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 제1절 연구 내용 정리

- |                   |    |
|-------------------|----|
| 1. 인사미술공간의 핵심 정체성 | 79 |
| 2. 인사미술공간의 당면 과제  | 80 |

## 제2절 구체적 발전 방안

- |              |    |
|--------------|----|
| 1. 제언과 실행 전략 | 83 |
|--------------|----|

참고문헌 88

[붙임 1] 89

[붙임 2] 99

# 제1장

## 연구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 제2절 연구 방법

1. 기초 자료 및 문헌 연구
2. 인터뷰 및 기타 사례

### 제3절 연구 추진 계획

1. 진행과 보고
2. 세부 일정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 배경

## □ 국공립 대안공간으로서의 인사미술공간

- 대안공간(alternative space)은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주류 제도와의 변별성을 부각하며 형성 및 발전한 예술 거점이다. 이들은 당시 정치적이고 사회참여적인 예술, 제도비판적인 예술, 실험적인 젊은 예술 등을 수용하거나 배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대안공간 개념은 1990년대 후반 한국 미술계에 수입되어 대안공간 루프, 대안공간 풀, 쌈지스페이스 등을 중심으로 1세대 대안공간 시대를 연다. 이때 미국과 한국의 대안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차이점은 연구자마다 다소 상이하게 주장되나, 결과적으로 한국 1세대 대안공간들은 국공립 미술관과 사립 미술관으로 양분돼 있던 미술계에 3지대를 형성하고, 한동안 미술관 ‘비갈’에서 제도가 판단을 유예하는 보다 젊고 실험적인 미술을 촉진했다.
- 200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개관한 인사미술공간은 ‘대안적 성격의 공공기관’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대안공간’이라는 독특한 위치를 점유한다. 요컨대 ‘제도에서 직영하는 비제도 공간’이라는 모순된 시스템은 그 전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당시 한국의 특수한 상황-① 1990년대 후반 심각한 경제 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창작 활동 ② 미술대학 정원 증가와 대학 입학률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한 실기 전공자 증가 ③ 세계화 시대에 걸맞도록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젊은 작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근거가 되었다. 인사미술공간의 핵심 미션으로 유지되고 있는 신진 미술인 육성, 제도 진입을 위한 관문으로서의 역할은 이러한 정체성에 부응하기 위한 바다. 지난 20년간 한국 동시대 미술의 지형도에서 인사미술공간은 스스로 자임한 소기의 역할-① 유망 신진 미술인들의 거점 ② 제도-비제도간 가교로서 꾸준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관해선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다.

## □ 2010년 이후 한국 미술의 변화 1: 전시 공간의 다원화

- 2000년대 이후 미술계의 제도·시스템은 현재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정비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점차 과거와 다른 장기 저성장 시대가 도래했다. 소위 ‘기대

감소 시대'로 집약되는 이러한 국면에서 예비 미술인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는 당대의 복합적인 청년 이슈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제도적 기회에 대한 냉소가 확산되기도 했다.

- 2010년대에 접어들며 본격화된 소규모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artist run space) 들의 등장은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각광받았다. 주로 미술가 개인에 의해 운영 및 관리되는 소규모 전시공간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매개로 벌어지는 휘발적이고 가변적인 미술 이벤트 기획이 2010년대 한국 미술의 한 가지 경향이 되었다. 양적으로 이런 흐름은 2015~2016년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0년 현재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어느 정도 소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sup>1)</sup>
-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여러 종류의 전시공간은 흔히 '신생공간'이라 통칭된 바 있다. 이 명칭이 이들의 정체성이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오히려 그만큼 다원화되어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각 공간의 현실을 반증한다. 이것은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전시공간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대안공간의 역할이 점차 쇠락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현상을 더욱 촉진시킨 변화다.

#### □ 2010년 이후 한국 미술의 변화 2: 예술 지원 제도의 평균화

- 문예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재편되고(2005년) 서울문화재단이 설립된(2003년) 2000년대는 각종 예술 지원 프로그램의 모태와 법적 근거가 정비된 시기다. '난지미술창작레지던시'(2006년)와 'SeMA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2008년) 역시 이 시기 시작되었다. 국가 주도의 예술 지원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일반 기업의 문화재단 활동이나 후원, 사회공헌(CSR:CSV)이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점차 축소되면서 순수미술 창작의 국공립 기관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 즉, 정부나 정권의 문화정책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된 상황에서 2010년대는 신진 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 문제가 각 정권에서 관심을 기울인 청년 문제의 일환으로 편입된다. 2016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한 '최초예술지원'은

1) 관련 정보를 수집해 온 웹 계정 '역는자'에 따르면 2016년 수도권 권역에 등장한 새로운 전시공간은 약 50여 개 정도로 집계되었다. 이중 상당수가 건물 임대 주기(통상 2년)에 맞추어 운영을 중지했으나 동시에 꾸준히 새로운 공간과 공간 기반 프로젝트가 발생했다. 각 공간들의 임시성은 그들의 목표지향적 성향, 자율적 성향 등을 드러낸다.

기존 ‘젊은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 및 확대한 것으로 신진 작가들의 작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 같은 해 기획된 ‘청년예술공간지원’은 소규모 전시공간들을 거점으로 만들어지는 작가 개인 중심의, 작고 빠른 전시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상을 가속화했다.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이 큰 틀에서 상호작용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나, 이러한 일군의 ‘청년정책’은 서로를 참조하며 점점 평균화·평준화되고 있다.

## 2. 연구 목적

### □ 인사미술공간 20년 시대의 비전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

- 상술한 바처럼 2000년 이후 한국의 사회적 변화, 미술제도적 변화, 창작현실의 변화는 큰 폭으로 변모했다. 2020년은 인사미술공간이 개관 20주년을 맞는 해로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점검함으로써 인사미술공간의 동시대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기적 비전을 재설정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를 위한 선행연구로서 특히 신설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당위를 마련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문화비전 2030’을 통해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새로운 예술정책으로 제안했다.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 ‘아르코 비전 2030’은 이에 대한 후속 실행 전략으로 그중 최우선 세부과제로 적시된 ‘지속가능한 예술가의 창작 터전 공고화’는 인사미술공간의 핵심 미션과도 직결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 비전 2030’에 호응하면서, 주요 전략과제—① 예술의 지평 확대 ② 예술 현장 중심 지원체계 확립 ③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④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⑤ 기관운영체계 혁신 ⑥ 현장 협력형 기관 운영이라는 목표에 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 인사미술공간 부지 이전 대비 운영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 인사미술공간이 2006년 이전한 현 원서동 부지는 그간 각종 프로그램의 무대이자 배경이 되며 인사미술공간의 특별한 캐릭터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임대공간이라는 계약 조건의 한계는 해마다 부지 이전 가능성을 대두시킴으로써 장기적 비전 수립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전시공간은 미술 활동의 중요한 물리적 지지체이며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시설 노후, 각 층별 특수성, 이에 대한 예산 대비 효율의 측면 등 공간 이슈에 관한 재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를 실행하는 기준이 될 만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표로 작가 및 관객의 접근성을 함께 검토한다.

□ 신진 예술인 지원방식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

- 인사미술공간은 제도-비제도간 가교로서 신진 작가 및 신진기획자를 지원해 미술계 적체를 해소하고 새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데 일조해 왔다. 특히 ‘인미공 워크숍’(ARKO 작가큐레이터 워크숍) 출신 작가큐레이터들은 현재 한국미술을 주도하는 플레이어들로 성장하고 있다. ‘인미공 워크숍’ 이후 인사미술공간은 2016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 분야 선정 작가기획자의 전시를 지원 및 수행하는 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사미술공간이 독립적으로 주최·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현장에서 여전히 높다.
- 전시공간이 다원화되고, 제도적 지원 프로그램들이 평균화·평준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공립’-‘대안공간’으로서 인사미술공간의 변별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면서 동시대 한국 미술계에 명확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제2절 연구 방법

### 1. 기초 자료 및 문헌 연구

#### □ 인사미술공간 기초자료 수집

- 개관 이래 많은 전시, 워크숍, 프로젝트를 개최해 온 인사미술공간의 기획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의 공간 운영 성과와 한계를 유추하고 운영 방향 재설정을 위한 소결을 도출한다.

#### □ 기존 문헌 연구 검토

- 국내 연구 자료 중 인사미술공간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삼았거나 공간 운영의 맥락을 다룬 연구 및 조사를 선정해 요약한다.
- 구체적으로는 2000년 이후 발표된 문헌 자료 중 인사미술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 공간 운영방안에 관해 제안하는 것, 2010년 이후 발표된 시각예술 지원 프로그램 관련 문헌 중 상술한 기준에 따라 언급할 만한 의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정한다.

### 2. 인터뷰 및 기타 사례

#### □ FGI 조사

- 미술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사미술공간에 관한 인상과 평가, 물리 공간의 장단점과 입지, 신진 작가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과 제언을 수집한다.
- 구체적으로는 과거 인사미술공간에서 프로젝트(네트워킹, 세미나 워크숍 참여, 개인전 개최 등)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자를 그룹 1, 그러한 경험이 없는 자를 그룹 2로 설정한다.
- 총 참여 인원에 대해 작가, 기획자, 비평가의 비율을 적절히 분배한다. 그룹 1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정한다. 그룹 2는 1990년 이후 출생자 중에서 선정하되, 다른 제도권 예술 지원 프로그램 혹은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그 실무자로 일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 □ 해외 대안공간 사례 조사

- 해외 대안공간 사례를 수집하여 운영 방향을 재설정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구축한다. 각 기관의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내부 콘텐츠 등 현황을 리서치한다.
- 구체적으로는 독일의 'DAAD'와 'KW', 영국의 'FACT', 오스트리아의 'Ars Electronica' 미국의 'Eyebeam'을 선정하였다. 해당 기관들은 국공립 기금으로 운영되거나 조직되었으며 예술 생산자와 소비자, 미술 기관 사이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해 그 과정에서 창조적 활동이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장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 □ 국내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조사

- 인사미술공간은 그간 전시 공모, 신진 작가-기획자-비평가 워크숍, 차세대예술 인력육성사업(이하 AYAF, ARKO Young Art Frontier)과 예술창작아카데미로 변화해 온 일군의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있는 신진 미술인을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하고자 했다. 여러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확산된 지금, 그러한 제도의 현재를 파악하는 일은 인사미술공간 정체성 재고를 위한 적절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 이를 위해 시각예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주요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한다. 각 프로그램의 사업 목적,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내용, 심의 방법을 정리한다.

## 제3절 연구 추진 계획

## 1. 진행과 보고

- 연구 수행기관과 담당 연구자는 관련 조사의 실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여 진행한다.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충분한 상호공유 속에 이를 추진한다.
- 진행 관련 세부 추진 일정은 아래 “2. 세부일정”을 따르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한다.
- 추진 과정 중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 총 3차례 보고회를 개최한다. 격주간 또는 별도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로 자료수집 및 조사 진행 과정을 보고할 수 있다.

## 2. 세부 일정

날짜	단계	세부과업	비고
11월 1주	연구 준비	인력 구성 및 연구계획 수립	연구 배경, 필요성, 주요 내용을 포함한 한글 문서 5페이지 이내
11월 2주	연구 준비	착수보고용 연구계획서 제출	
11월 2주	연구	연구 실행 프로세스 도출	
11월 3주	연구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1	인덱스와 각 항목별 간략한 서술을 포함한 한글 문서
11월 3주	연구	중간 보고	
11월 4주	연구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2	
12월 1주	연구	FGI 진행	7명 내외
12월 2주	연구	연구 보고서 작성 1	
12월 2주	연구	연구 보고서 작성 2	
12월 3주	연구	연구 검토와 요약본 작성	
12월 3주	최종 보고	최종 보고용 전자 파일 제출	표지를 포함한 전자파일 (HWP, PDF)

## 제2장

### 인사미술공간 운영 현황

#### 제1절 초기 현황

1. 설립 목적과 배경
2. 설립 초기와 연혁

#### 제2절 운영 현황

1. 인사미술공간의 현재
2. 전시 사업
3. 전시 외 사업
4.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

#### 제3절 소결 - 인사미술공간 운영의 성과와 한계

## 제1절 초기 현황

### 1. 설립 목적과 배경

- 1990년대 후반 한국 미술계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위축된 창작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 미술 실기 전공자가 증가함에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작가가 부재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인사미술공간은 이를 위해 조성한 공익자금에 의해 설립된 곳으로, 문학 등 타 분야의 교부금 지원이 일회성 작품 발표에 그쳤던 것을 보완해 전시 생산의 전 단계를 지원함으로써 작가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자 했다.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전시를 개최해 미술계의 침체를 극복한다는 취지하에 ① 유망 작가 발굴 ② 유망 작가 지원 ③ 대안공간 네트워크 형성 ④ 미술계 담론 활성화 ⑤ 국제교류 특성화 ⑥ 관객 개발 및 교육이라는 6개 목표를 수립했다.
- 유망 작가를 지원할 뿐 아니라 유망한 대안공간을 발굴하고 검증해 상호 네트워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 대안공간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당시 대안공간의 흐름을 유의미하게 주목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 2. 설립 초기와 연혁

- 인사미술공간 초기 조직
  - 인사미술공간은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의 별관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미술회관 팀장의 관리 아래 책임 큐레이터 1인,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2인을 두었다. 미술회관 팀장에 김찬동, 책임 큐레이터에 백지숙, 어시스턴트 큐레이터에 강성은, 김기용이 있었다.
  - 미술회관과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운영위원회는 총 6인으로 책임 큐레이터 백지숙과 미술회관 팀장 김찬동을 포함했다. 그 외 4인은 미술대학 교수, 작가, 미술평론가, 타 대안공간 관장, 국립미술관 학예실장으로 구성되었다.

#### □ 인사미술공간 초기 부지

- 인사미술공간은 5월 26일 인사아트센터(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1-1, 소유주 가나아트 이호재) 3층에 개관했다. 주 전시장(64평), 프로젝트 룸(7평), 사무실(11평) 및 부대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억(문예진흥기금), 월세 200만원(부가세 별도, 문예진흥기금)이었고 관리비를 별도 지급(월 평균 350만원 수준, 문예진흥기금)했다.

#### □ 주요 연혁

- 1999. 11. 유망 젊은 미술작가 전시 공간 조성사업 추진안 수립 (문화관광부, 문예진흥원)
- 1999. 12. 유망 작가 전시 공간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대상 공간 결정
- 2000. 02.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신청
- 2000. 02. 인사미술공간 운영위원 위촉
- 2000. 03. 인사미술공간 직원 추천
- 2000. 04. 큐레이터 및 전시운영요원 임용
- 2000. 04. 전시장 내부 시설 공사 완료
- 2000. 04. 기획 초대전 공모 진행
- 2000. 05. 개관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가나아트센터 3층)
- 2003. 11. 부지 이전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학교재갤러리 3/4층)
- 2006. 03. 부지 이전 및 재개관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창덕궁길 89)
- 2009. 인사미술공간 아카이브를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로 통합
- 2015. 11. 인사미술공간과 아르코미술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로 통합
- 2018. 03. 인사미술공간과 아르코미술관이 미술관운영부로 독립
- 2020.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운영부 소속

## 제2절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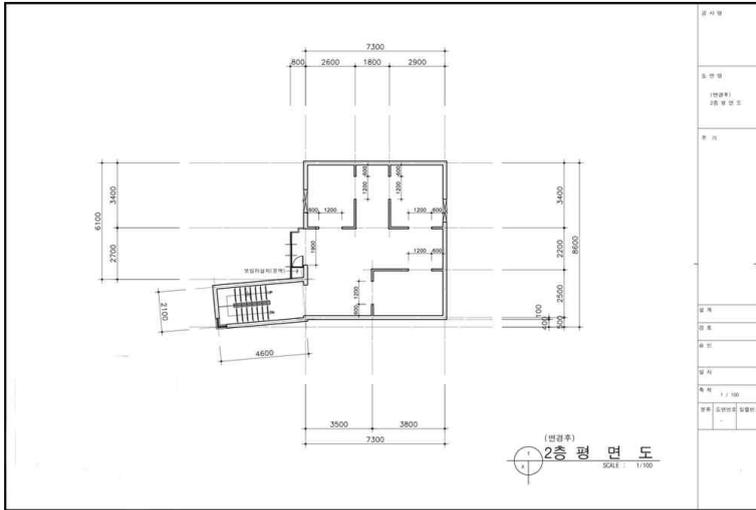
### 1. 인사미술공간의 현재

- 인사미술공간은 2006년 부지 이전을 거쳐 현재 원서동(창덕궁길 89)에 위치한다. 2016년부터 신진 예술가 지원 전문 공간으로서의 활성화를 표방하며 기획-창작-비평-확산의 체계적 지원을 목표로 예술가 창작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 2015년부터 아르코미술관, 인사미술공간, 예술가의집 등이 시각예술부 산하에서 통합 운영되었으나, 2019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부서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해 사업별 특성화, 효율화, 전사적 사업 연계를 추진한 결과, 현재 예술공간운영본부 미술관운영부에 속해 있다.
- 인사미술공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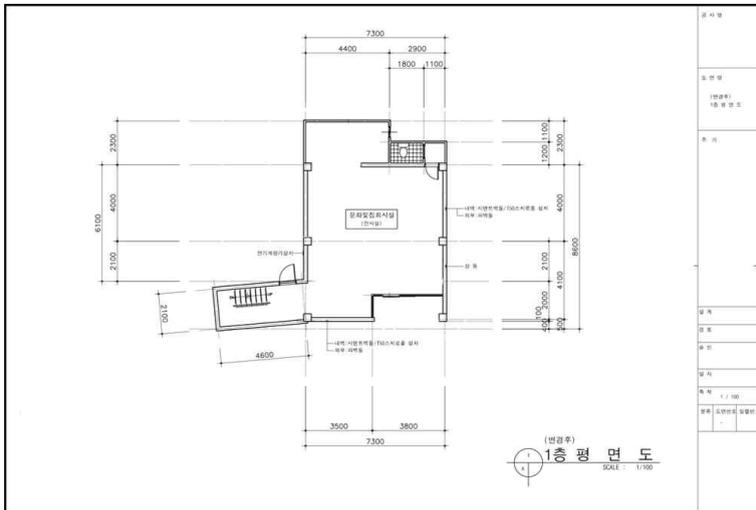


- 인사미술공간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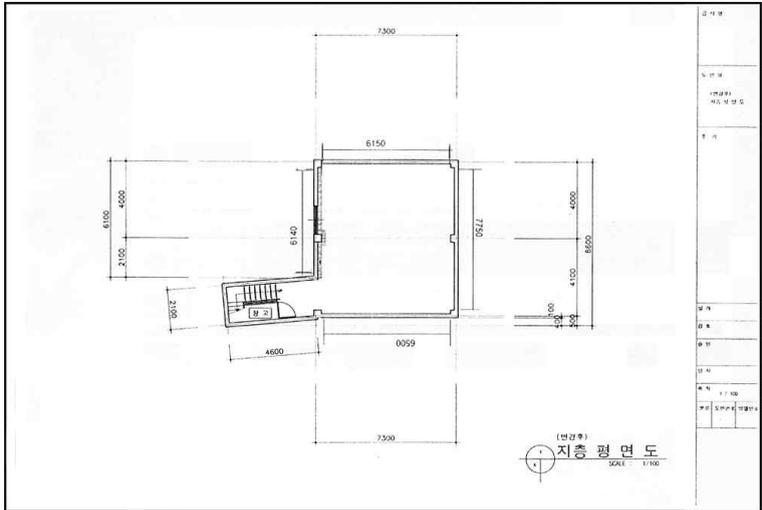
- 2층



-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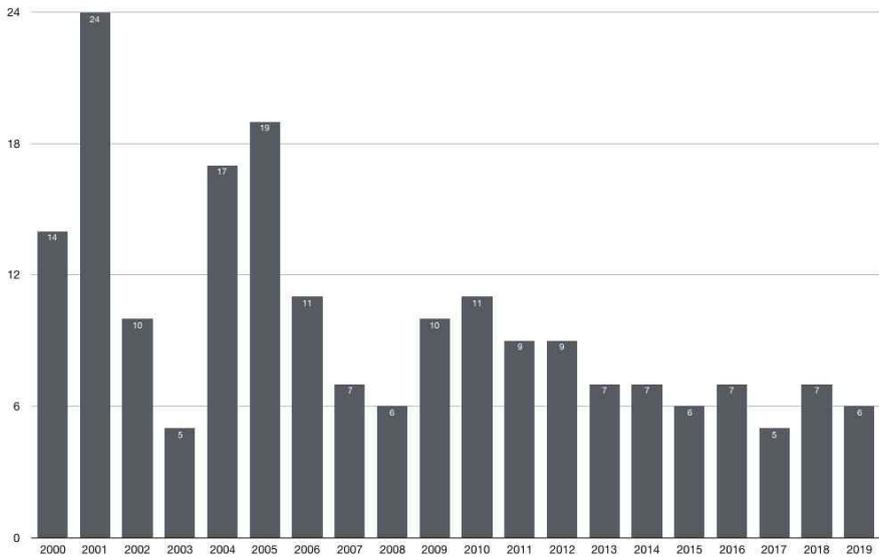


- 지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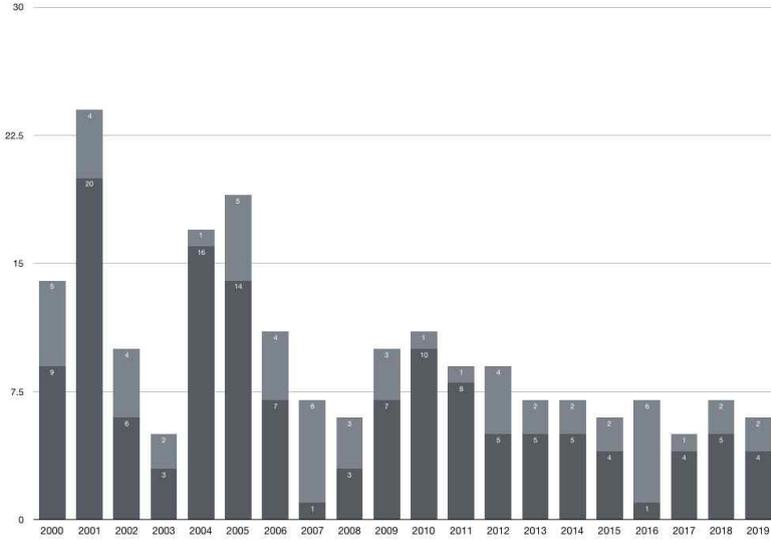


## 2. 전시 사업

인사미술공간 전시 사업 현황



연도별 개인전과 단체전 비율



총 개인전과 단체전 비율



- 인사미술공간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개최한 전시는 총 197회다. 그중 개인전은 134회(68%), 단체전은 63회(32%)로, 단체전보다 개인전이 약 2배 이상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중 명확히 기획전임을 표명한 전시는 15회 정도이다. 인사미술공간이 운영한 프로젝트나 워크숍의 성과 보고전, 결과 보고전 또한 단체전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주제 기획전과 인사미술공간 자체 기획전의 개최 빈도는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다.
- 2012년에는 공모를 통해 전시를 개최했고, 2013~2016년에는 AYAF 사업 참여자들의 결과 보고전을,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 참여자들의 보고전을 진행하고 있다.
- 주제 기획전으로 «선사인-남북을 비추는 세 가지 시선»(2001), «한 호 큐레이터 교류전 - 증인들: 호주 사진 미디어 작가»(2001) 등이 있으나 설립 초기에 한정되어 있다.
- «막간»(2016~2017, 2019)의 경우 인사미술공간 자체 기획 프로그램이면서, 전시를 포함해 여러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는 예술축제의 성향을 가진다.
- 2006년부터 비디오 및 디지털 영상 매체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시작해 «스크리닝: 비주얼 사운드»(2007), «시네마틱, 무빙 이미지의 확장: 아티스트 필름&비디오 쇼케이스 2008»(2008), «서울 문화의 밤: 제로원 아카이브 스크리닝 + 인사미술공간 스크리닝»(2009), «비디오 + 캐스트 작가 13명»(2011), «제2회 비디오 릴레이 탄산»(2013), «제3회 비디오 릴레이 탄산»(2014) 등을 열었다. 이러한 사업은 2015년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다.
- 2014년 이전의 인사미술공간은 내·외부 기획의 교류 및 연계성이 두드러지며 프로그램과 전시가 병렬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AYAF와 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 이후 자체 기획 감소와 함께 이러한 경향이 희미해졌다. 또 2008~2009년을 기점으로 줄어든 전시 및 프로그램 빈도가 회복되지 않고 하향평준화되었다.
- 상세한 전시 사업의 목록은 “[별첨1]”로 첨부한다.

### 3. 전시 외 사업

- 전시 외 사업의 경우 ① 프로젝트 ② 워크숍 ③ 신진 작가기획자 워크숍 ④ 아카이브 사업 ⑤ 기타로 정리하였다.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동두천 프로젝트의 경우 뉴욕 뉴뮤지엄, 노드돌(Nodutdol), 멕시코시티 등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며 ‘동두천’을 중심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단일한 프로젝트 내부에서 작가 토론회, 워크숍, 전시, 스크리닝처럼 다양한 부대 행사가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 주로 전시 연계 아티스트 토크 등으로 한정되던 프로그램들이 2005년 이후 워크숍 형태로 발전했고, 2006년 이후엔 당대 시각 문화와 사회·정치적 이슈, 로컬리티를 다루는 워크숍이 등장했다. 2009년부터는 신진 작가와 기획자를 모집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재 인사미술공간을 대표하는 연간 단위 프로그램의 전신을 갖추게 되었다.
- 아카이브 사업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매주 금요일 <오후 다섯 시>라는 이름으로 이미지 아카이브에 관한 토크를 개최하였고, 2006년과 2007년에는 작가를 섭외해 아카이브와 연계한 전시를 개최했다. 해당 전시는 2007년 이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상술한 바와 같이 인사미술공간에서는 특히 프로그램, 전시, 아카이브를 연계해 무빙 이미지에 관한 이론적 장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현재 유관하게 지속되고 있는 사업은 없다.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에서 일부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작품 및 자료는 검색과 접속이 불가능하다.
- 상세한 전시 외 사업의 목록은 “[별첨2]”로 첨부한다.

### 4.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

-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의 전개

연도	프로그램명	참여 인원
2005	작가 성장 프로젝트	
2006	신진 작가 수첩	
2007	신진 작가 수첩	
2009	전문가 워크숍	작가 20명, 큐레이터 16명
2010	전문가 워크숍	작가 15명, 큐레이터 10명
2011	상·하반기 신진 작가 워크숍	작가 35명, 큐레이터 4명
2012	상·하반기 신진 작가 워크숍	작가 18명(상반기), 작가 16명(하반기)
2013	신진 작가 워크숍	작가 20명
2014	2014 인사미술공간 작가 워크숍	작가 20명, 큐레이터 5명
2015	ARKO 시각예술분야 작가 큐레이터 워크숍	작가 22명, 큐레이터 8명

연도	사업명	인원	지원 방식	대상
2009 ~2011	인사미술공간 전시지원	연도별 각 8~10명	전시 공간 제공 전시 경비 차등 지원	만 35세 이하 작가 및 경력 1회 이상 큐레이터
2012 ~2015	AYAF (시각분야 차세대예술인력 육성사업)	연도별 각 5~7명	공간, 전시 준비금 제공 및 큐레이터 작가간 1:1 매칭지원	만 35세 미만의 실험적 성장 가능성을 추구하는 신진 작가
2016 ~2018	예술창작 아카데미 시각예술	연도별 각 7명	창작 전 과정 멘토링 및 성과 보고전 지원	만 35세 이하의 기획전 및 단체전 2회 이상(개인전 1회 이상) 경력 작가 또는 큐레이터

## 제3절 소결 - 인사미술공간 운영의 성과와 한계

- 인사미술공간은 2000년 개관 이후, 당대 주목받기 시작한 대안공간 담론의 장에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년간 총 197회에 이르는 전시를 개최하며 한국의 지역적 특수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비디오·미디어·이미지 아카이빙, 신진 작가기획자를 발굴하고 그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술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 원서동으로 부지를 이전하기 전에는(~2005) 신진 작가를 미술계에 소개하는 일에 주력했는데 프로그램 개최 빈도보다 초대전의 형태로 개최된 개인전 빈도가 훨씬 높았음이 그 근거다. 부지를 이전한 후에는(2006~)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서울 밖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의 작업,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라운드 테이블, 원서동 로컬리티와 미시사를 탐색하는 리서치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다.
- 2009년 이후 인사미술공간은 아르코미술관과 운영 측면에서 완전히 통합되었으나, 기존 프로그램인 <작가 성장 프로젝트(Artists Upgrade Project)>나 <신진 작가의 수첩>을 전신으로 삼아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신진 작가기획자 워크숍을 주최 및 주관했다. 이 시기 인미공 워크숍에 참여한 미술인들이 동시대 미술계 전방위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2015년부터는 워크숍·성장 프로그램 또한 통합되어 AYAF나 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 참여자들의 결과를 인사미술공간에서 발표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 이러한 상황은 인사미술공간의 조직 체계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관 당시 6명의 운영위원과 3명의 전문 상주인력이 존재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심각한 인원 감축으로 평균 1명 수준에서 인력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기획 인력과 관련 예산의 부재는 인사미술공간이 주도적으로 시각적 담론을 제시하고 선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인이다. 2008~2009년을 기점으로 하락한 각종 정량 수치들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 미술관운영부 산하에서의 애매한 포지션, 잦은 위상 변화는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을 상승시키며 인사미술공간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다.

## 제3장

### 인사미술공간에 관한 기존 연구들

#### 제1절 조사 개요

1. 목적과 설계
2. 조사 범위

#### 제2절 인사미술공간 관련 문헌 조사

1. 문헌 그룹 1
2. 문헌 그룹 2
3. 기타 연구 자료집

#### 제3절 소결 - 인사미술공간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쟁점들

## 제1절 조사 개요

## 1. 목적과 설계

## □ 조사 목적

- 국내외 대안공간, 신생공간,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를 주제로 하는 문헌들을 조사해 인사미술공간 운영방안 설정에 준거가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 조사 설계

-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잡지, 단행본 중 직접적으로 인사미술공간을 언급하였거나 대안공간의 관점에서 인사미술공간을 분석한 글, 추후 인사미술공간 프로그램 설계에 참조가 될 수 있는 글을 조사 범주로 삼았다.
- 내용면에서는 ① 국내 비영리전시공간(대안공간·신생공간)의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제시를 주제로 삼은 논문(문헌 그룹 1) ② 시각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주제로 삼은 논문(문헌 그룹2) ③ 그 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자료(기타 연구자료집) 총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 2. 조사 범위

## □ 문헌 그룹 1 (국내 비영리전시공간의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제시를 주제로 삼은 논문)

- 정소라, 「국내 대안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연구」, 2005
- 채주희, 「한국 대안공간의 특성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007
- 신현진, 「사회적 체계 이론의 맥락에서 본 대안공간과 예술의 사회화 연구」, 2015
- 안민혜,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 신생공간」, 2015
- 신혜영, 「스스로 ‘움직이는’ 미술가들: 자립적 미술 신생공간 주체들의 생활 경험과 예술 실천 연구」, 2016
- 이주연, 「대안적 예술 공간과 대안성의 문화정치: 국내 대안공간과 신생공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7

- 백송민, 「한국 대안공간의 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019

□ 문헌 그룹 2 (시각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논문)

- 장인태, 「기초 예술 육성을 위한 문예진흥기금의 효율적 지원 방안 연구」, 2006
- 최범식, 「문화예술인 지원 정책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시각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12
- 정지연, 「1990년대 이후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별 사례 연구」, 2017
- 안나현, 「국공립미술관의 신진 작가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2019

□ 기타 연구자료집 (참고할 만한 의의가 있는 기타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의 대안공간 실태연구, 200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9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전시공간 실태 조사 및 현황 분석, 2018

## 제2절 조사 내용

## 1. 문헌 그룹 1

- 국내 비영리전시공간의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제시를 주제로 삼은 논문
- 정소라(2005)는 먼저 대안공간을 “미술관의 제도적 관습과 상업 갤러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자 하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 실험하고 있는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성격을 표방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대안공간을 비영리 갤러리(non-profit gallery), 작가주도 갤러리(artist-run gallery), 작가 조합 갤러리(artist organization), 작가 공간(artists space), 독립미술공간(independent art space) 등과 같은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규정하고 물리적 공간과 시스템 모두에 대한 ‘대안’을 담은 의미로 이해했다. 대안공간의 특성은 ① 반제도적 성격의 공간 ② 실험적인 미술을 위한 공간 ③ 비영리적 운영 체제 ④ 장소특정적 미술(site-specific art)과의 상호 관련성으로 정리했다.
  - 대안공간 루프, 대안공간 풀, 사루비아 다방, 인사미술공간, 씬스페이스, 프로젝트 스페이스 집, 스톤 앤 워터, 스페이스 빔 총 8개 공간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 주류 미술 기관에서 전통적인 매체인 회화 및 조각 작품이 많이 선보였던 데 대한 반동과 대안으로서 사진과 영상을 선호함을 대안 공간에서 개최되는 전시들의 특징으로 설명했다.
  - 이러한 대안공간들이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작가 또한 지원하며 ‘새로운 동기 부여와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세대간 교류 및 소통을 꾀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대안공간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신진 작가 발굴만 진행된다면 대안공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 기존 제도와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 대안적 행정 운영 시스템, 대안적 작가 발굴, 전시 내용물에서의 차별화 등 구체적인 대안성을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 발전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물리적, 운영적, 전시 내용적, 재정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① 일상적인 공간들을 대안공간으로 활용 ② 대중과의 친화성 모색 및 프로그램 활성화 ③ 실험적 미술의 수용으로 비제도적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④ 각 대안공간들 간 차별성 추구 ⑤ 다양한 자원 조성 루트 개발로 각각 제시했다.

□ 채주희(2007)는 대안공간을 ‘대안의 공간 운동(alternative space movement)’을 포괄하는 것으로 바라보았으며 그 의미에 주목하기보다 대안공간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제도적 배경에 집중해 작가들이 스스로 작품 발표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것, 제도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 활성화된 것, 더 다양해진 미술계의 수요와 공급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대안공간 즉 확장된 개념의 전시 공간이 가진 동력이라고 정의했다.

- 당시 대안공간의 역할에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가운데 대안공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점을 전제하며, 연구의 범위를 대안공간이 탄생한 시점인 1999년부터 2006년까지로 제한한다.
-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사)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12개 대안공간-대안공간 루프, 대안공간 풀, 사루비아 다방, 쌈지스페이스, 인사미술공간, 갤러리 정미소, 아트스페이스 휴, 브레인 팩토리, 스톤 앤 워터, 스페이스 빔, 대안공간 반디, 오픈 스페이스 배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공간들은 비영리로 운영되며 기획전 위주의 전시를 진행하고 전문 큐레이터와 함께 2년 이상 운영된 대안공간이다.
- 특히 인사미술공간과 관련해, 2007년 기준 인사미술공간의 예산이 다른 11개 대안공간에 지원된 예산 총액의 두 배에 달함을 지적하고<sup>2)</sup> 다른 대안공간들이 할 수 없는 활동을 인사미술공간이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분야 담당 이윤희 간사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외부로부터 인사미술공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다른 대안공간과 차별화된 역할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 2006년부터 기획 공모를 없애고 자체 기획이나 외부 큐레이터, 외부 비평가의 추천으로 전시를 기획하려고 한다. 아카이브 관련 활동이나, 미디어의 유통·배급, 국제교류전과 관련해 다른 대안공간을 연결해 준다든가 하는..., 일반 대안공간에서 하기 힘든 것을 인사미술공간이 해 나가려 계획하고 있다(75).”

2) 당해(2007년) 인사미술공간 예산은 678,000,000원이다.

- 최종적으로 국내 대안공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관해서는 ① 정체성의 문제와 대안 모색 ② 재정 총원 문제와 해결 방안으로 정리한다.
  - 전자에 관련해서는 젊은 작가를 지원한다는 점, 비영리로 운영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안의 제시가 명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인사미술공간의 작가 성장 프로젝트를 제외한 다른 대안공간의 신진 작가 발굴 프로그램은 체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작가 지원의 체계성, 담론 형성 가능성을 지닌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공간 운영자나 기획자의 전문적 안목과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 또 각 대안공간 프로그램이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몰개성화를 지적하고 이를 대안공간 권력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규정했다. 결론적으로 각 대안공간들 사이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 자원 구성에 관해서는 더 다양한 계층의 평가자문위원단을 두어 세분화된 평가를 진행하고 지방과 수도권 대안공간의 역할에 지역적 특성화를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신현진(2015)은 대안공간의 발전 과정이 예술의 사회화 과정이었다고 규정하며 대안공간의 활동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쇠퇴하였음을 명시하였다(1).
- 특별히 인사미술공간에 대해 대안공간 풀과 공동기획한 2001년 전시 «선사인(헛별)전: 남북을 비추는 세 가지 시선»을 예로 들며 “정부 기관이 남북문제를 다루면서 프로파간다적인 방향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대안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결론부에서는 국제적 맥락에서 대안공간을 “자본주의가 예술과 호환되도록 도운 소실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은 새로이 도래한 예술이 사회화된 여건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사라진 것”으로 규정한다.
- 안민혜(2015)의 연구는 학술 논문 중 가장 빠르게 신생공간을 언급하는 것 중 하나로 당시 30여 곳에 이르렀던 ‘신생공간’이 지닌 뚜렷한 가시성을 포착하고 «굿-즈»(2015)의 운영 주체들이 신생공간 운영자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 이들의 등장 배경을 “더 이상 ‘역동적인 새로운 실험이 불가능해진 미술’이라는

과제, 사회 안에서 작가의 위치를 재고하게 된 몇몇 사건들, 고정된 형태를 지니지 않았거나, 과정이나 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미술을 포섭하지 못한 채 여전히 견고한 틀을 고수하는 기성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설명했다(207).

- 또한 199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한국 대안공간들의 주요 프로그램을 ‘신인 작가 발굴’, ‘해외 교류’ 등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안공간 사례가 “공공지원금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공간의 자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공간의 성격과 운영 방향까지 변질시킬 수 있음을 시사”(209)한다고 결론지었다.
  - 대안공간과 신생공간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대안공간이 비교적 명시적으로 기존 미술 제도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내비친 반면 신생공간은 “기존의 ‘대안’이 되고자 하거나 기성의 반대쪽에 서고자 하기보다는 “예술가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 질문을 제기했다고 정리했다(209).
  - 마지막으로 신생공간과 «굿-즈»를 중심으로 미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미술 작품의 생산-유통-소비의 구조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DIY가 DIT(Do It Together)의 태도로 전환되며 미술의 새로운 판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 신혜영(2016)은 2014~2015년을 기준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시 공간이 크게 늘어났음을 주목한다. 이들이 대안공간과는 수적 증가세, 주체, 규모, 목적, 성격의 차원에서 다름을 지적했다.
- 인터뷰 조사를 통해 신생공간에 연관된 예술 활동의 배경을 ① 사회 전반의 경제적 상황과 미술장의 변화된 구조 속에서 작가들 스스로가 작가로서 생존하기 위한 필요성이 우선(197)한 것으로 규정하고 ② 공간을 통해 인지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가 수용할 수 없는 새로운 결과물을 내고 그 결과물로 주변 사람과 소통하며 작가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197)로 했다고 정리했다.
  - 또한 신생공간의 특징으로 ① (운영 주체의) 자기충족적 멀티플레이어의 삶 ② 조건특정성과 유동성의 예술 실천 ③ 미술장 신참자의 전략과 위치 취하기로 정리했다.
- 이주연(2017)은 대안공간과 신생공간을 각각 범주화하고 그들 사이의 예술 실천

방식·스타일이 갖는 의미를 이해 및 해석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안공간의 등장과 그들의 운동을 인지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다. “지난해 실험적인 신예 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표방하고 문을 열어 미술계의 신선한 충격으로 각계의 주목을 받고 많은 활동을 해온 대안공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관의 위기에 있는 것을 정부가 운영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53).” 이러한 국고 지원책은 미술계 내외적으로 대안공간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대안공간의 급속한 확장을 가져왔다.
  -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새 예술 정책 시안 자료에 의거하면 인사미술 공간 운영에 책정된 예산은 2억 원이었으며, 당시 정부는 ① 전시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신진 작가 지원 강화 ② 대안공간이라는 실천이 구현될 수 있는 재원 지원 ③ 대안공간 활성화와 생명력 유지 ④ 새로운 경험과 창작 가능성 구현을 위한 국내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⑤ 미래지향적 대안공간(사이버 공간 내에 영토를 가진 대안공간이과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대안성을 구현하는)을 지향하는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54).
  - 결론적으로 대안공간과 신생공간을 포함하는 대안적 예술 공간 현상은 그들을 둘러싼 미술계의 환경 변화와 다양한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왔고, 이들의 구체적인 실천 역시 그러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왔음을 드러냈다.
- 백송민(2019)의 연구는 대안공간과 신생공간을 다룬 가장 최신의 연구로, 각각의 동향 및 추세를 살펴 활동과 성과를 정리하고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대안공간의 발생은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로, 신생공간의 발생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구분하였다.
- 먼저 대안공간의 성향을 ① 예술가 조직의 비영리적 운영 ② 반제도적 성격의 공간 ③ 예술과 공동체의 결합 ④ 전시 방법 및 매체의 다양화로 정리한다.
  - 2006년부터 2008년까지를 대안공간 쇠퇴 시작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를 ① 대안 공간을 통해 주류에 편입한 작가들의 제도권 미술 흡수 ② 신진 작가 발굴과 전시 기회 마련이라는 취지가 레지던시로 이행 ③ 대안공간의 대안적 기능 상실로 정리했다.
  - 인사미술공간에 관해서는 다른 대안공간과 달리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안

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덧붙여 “비디오 및 디지털 영상 작품의 유통 환경을 보호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디오 아카이브와 컬렉션을 구축하고, 배급 활동에 주안”(81)을 두고 있음을 특징으로 제시한다. 그 세부 프로그램은 ① 아카이브 ② 전시·프로덕션 ③ 워크숍으로 구분했다.

- 아카이브는 “다양한 전공 분야의 접근이 가능한 미래형 아카이브로 급진적 프로젝트의 출현, 작가와 연구자의 도발적 협업을 가능하게 하며, 영구적 진화를 거듭하는 대안적 아카이브를 지향한다”(84). 전시·프로덕션은 “작가적 상상력의 현실화 척도를 높이기 위해 시각예술 프로젝트의 착상에서 생산 및 유통,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부족한 기능과 역할을 보완해 간다”(84). 워크숍은 “일방적인 계몽보다는 자발적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시각예술 현장의 이슈와 어젠다를 능동적으로 도출, 이를 정교화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의 담론과 활동을 선점한다”(84).
- 마지막으로 출판과 저널 프로그램인 ‘IASmedia’와 계간지 『볼(BOL)』을 소개하고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연계를 통해 도큐멘테이션을 온·오프라인으로 확장 및 유통하여 “역사적 기억을 축적하고 수평적 국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84)고 설명했다.

## 2. 문헌 그룹 2

- 시각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주제로 삼은 논문
- 정인태(2006)는 문예진흥기금을 중심으로 당시 현황을 분석한 뒤 문제점을 운영과 지원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그 사례를 다시 ‘니뉘주기 형식의 지원’, ‘지원의 공정성 문제’, ‘수혜자가 없는 진흥기금 지원’, ‘내부 규정 자체의 잘못된 사항’, ‘문예진흥기금 조성의 문제’로 제시했다.
  - 이어 효율적 지원 방안으로 ① 기초예술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②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기초예술을 매개할 전문인 육성) ③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방식의 다양화(지원 방식 개선과 다양화)로 정리했다.
- 최범식(2012)는 정인태(2006)와 달리 시각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당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연구 및 정리하였고 해외 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해 시사점을

도출한 뒤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문화예술 정책 논의의 시작 시기를 1970년대로 설정한다. 이후 문화예술 정책 개념의 정의를 표로 정리했는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이를 문화와 관련된 공적 목적(공익)의 달성을 위한 행동 지침(23)이라고 정의하였음을 볼 수 있다.
  - 국내 문화예술행정기구를 ① 문화체육관광부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③ 문화예술진흥기금 ④ 법령체계 ⑤ 한국메세나협의회로 나누어 구분했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은 ① 창작스튜디오 ② 공공미술 ③ 미술은행 ④ 국내외 아트페어 지원 ⑤ 미술대전과 공모전 ⑥ 세제 혜택으로 정리했다.
  - 1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단발성 일자리 창출에 불과함을 지적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것, 작품 발표의 기회나 창작공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 정지연(2017)은 시각예술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도 시각예술 공공문화 예술기관이 진행하는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더욱 범위를 좁혔다. 공공문화 예술기관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고,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을 직접 지원 유형, 간접 지원 유형, 기타 지원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결론적으로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신진 작가를 규정함에 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당시 진행하던 시각예술 분야 차세대 예술 인력 육성 지원 사업(AYAF) 공모 기준(만35세 미만의 시각 예술 분야 작가)을 참고하여 “예술과 취미의 분야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새로운 예술의 조류 제시와 신선한 활력을 제공하는 사람”(14)으로 정의했다.
  - 지원 프로그램의 역사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를 신진 작가를 배출하고 발굴하는 제도의 전신으로 설정하였고, 이후 미술대전과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통해 신진 예술가 발굴만을 담당하였음을 밝혔다. 이후로는 AYAF를 최초의 신진 예술가 지원 사업으로 설정했다.
  - 중앙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03년 문예진흥기금 지원 ② 아르코미술관의 2005년 신진 작가와 큐레이터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성장 프로그램 개최(인사미술공간에서 진행) ③ 1973년 시작된 국립현대미술관의 ‘젊은 모색’ ④ 1981년 시작된 덕수궁미술관의 ‘청년작가전’ 등이 차세대 신진

작가를 발굴 및 육성하고 있다(27)고 설명했다.

- 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등 지역 재단, 그리고 각 지방 거점 미술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했다.
  - 신진 작가 프로그램을 총 7가지로 분류했는데, 창작기금 지원은 직접 지원 유형으로, 나머지 유형은 간접 지원 유형으로 나누었다. ① 창작 기금 지원 ② 창작 공간 입주 지원 ③ 전시 발표 기회 지원 ④ 홍보 및 프로모션 지원 ⑤ 창작 활동 경력 개발 지원 ⑥ 국내외 네트워크 개발 및 교류 지원 ⑦ 기타 지원이 있다.
  - 창작 기금 지원에서는 2009년 AYAF를 기준으로 삼는다. 1999년 신진 예술가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장르별로 진행되던 사업이 2002년부터 문학·미술·연극·무용·음악·전통의 6개 분야 신진 예술가를 지원하는 형태로 통합되었다. 해당 사업이 2009년 신진 예술가 인큐베이팅 사업, 인력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 5월 기초예술분야 차세대 예술가 지원 사업과 교육 사업을 통합·개선하여 예술창작아카데미를 신설했다고 정리했다.
  - 2005년 인사미술공간에서 시작된 ‘신진 작가 수첩’과 2009년 AYAF의 시각예술 분야 프로그램에 연계성을 부여했다. 2011년 아르코미술관이 인사미술공간을 폐지하고 아르코미술관 내에 별도 프로젝트 스페이스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미술계의 반대로 인사미술공간을 유지했다고 명시했다(44). 인사미술공간은 대안공간의 실험적인 공간 역할을 해왔으며 인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인 큐레이팅, 크리틱, 홍보, 멘토링 등을 동시에 진행하였음 또한 설명했다. 2016년부터 진행된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창작의 전 과정(연구-창작-연계지원) 단계를 지원함을 목표로 했다.
  - 마지막으로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 개선 방안으로는 ① 창작 기금 지원의 확대 ② 신진 작가 발굴 지원을 위한 작가 할당제 도입 및 창작 공간의 특성화 ③ 신진 작가 보호를 위한 전시 지원 ④ 홍보 교육 지원과 온라인 연구 개발 ⑤ 역량 강화를 위한 창작 활동 경력 개발 ⑥ 그 외 지원 유형별 컨설팅 제도 확대,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활용, 프로그램 지원의 용이성, 지원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인식 재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평가 필요 등을 제시했다.
- 안나현(2019)은 국공립미술관의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활성화 전략을 연구했다.

- 국공립미술관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 기능의 프로그램과 양성 기능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덧붙여 프로그램 운영 목적이 “신진 작가에 대한 미술 현장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 욕구가 고취되고, 이를 통해 좌절함 없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라 할 때, 발굴 기능 프로그램의 한계를 인식하고 양성 기능의 프로그램, 즉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자인 신진 작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제공(4)”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은 국립현대미술관, 아르코미술관·인사미술공간,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대구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총 6개를 대상으로 했다.
- 신진 작가 프로그램의 한계로 ① 신진 작가의 범주가 다양하여 프로그램이 신진 작가를 활용할 프로그램으로 전략될 수 있음 ② 발굴 및 양성 기능 프로그램 운영의 불균형 ③ 신진 작가들이 새로운 예술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를 뽑았다.
-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활성화 전략을 기관 차원, 프로그램 운영 전략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 기관의 차원에서는 ① 신진 작가에 대한 연구 및 조사 확대 ② 외부 기관과의 협력 추진 ③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강화 ④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내외 현장 전문가 자문 회의 마련을 제시했다.
- 프로그램 운영 전략에 있어서는 창작 역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구분해, 전자에는 ① 작품 창작 기술 지원 ② 전시 공간 기획 및 연출법 특강 ③ 작품 크리틱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후자는 창작 환경 지원과 프로모션 지원으로 다시 한 번 구분했다. 창작 환경 지원에는 ① 네트워킹 지원 프로그램 ② 해외 현장 전문가 초청 강의를, 프로모션 지원에는 ① 미술 작가를 위한 글쓰기 워크숍 ② 포트폴리오 제작 방법 특강 및 컨설팅을 제안했다. 여기서 미술 작가를 위한 글쓰기 워크숍의 예시로 2007년 인사미술공간에서 진행된 ‘미술인을 위한 글쓰기 워크숍’을 제시했다.

### 3. 기타 연구자료집

□ 참고할 만한 의의가 있는 논문 외 자료

□ 한국의 대안공간 실태연구(2007)는 대안공간이 당시 잡지 지면에서만 다루어지는 것 외에 전문적인 연구 영역에서 등한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각 대안공간의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한국 대안공간의 총체적 조사를 목적으로 했다.

- 이 연구는 대안공간의 역사를 정리하고 판단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안공간의 물리적·환경적 조건, 전시·학술·기타 프로그램을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외 교류 상황, 재정 현황, 인력 현황이 분석 영역에 포함되었으며 인력 문제에 관해서는 고용 현황을 조사한 뒤 별도의 심층 인터뷰를 일부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 최종적으로는 장기적인 대안공간 발전 방안으로 ① 다양한 형태의 재원 확보 ② 대안공간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③ 이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가진 대안공간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고, 인력 고용 문제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포함했다.
- 대안공간에 집중해 비영리전시공간, 작품을 거래하지 않고 미술관처럼 작품을 수집·보존하지 않는 공간을 대안공간 규정의 최소 준거점으로 삼고 기타 비주류 예술 활동으로 대안공간 활동으로 정의했다.
- (사)대안공간네트워크와 인사미술공간의 탄생을 1990년대 시작된 대안공간의 흐름이 제도로 진입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대안공간의 ‘대안성’ 문제와 ‘지정기금’ 제도의 문제를 고민했다.
- 대안공간을 위한 구체적 지원 제도와 정책 수립이 대안공간을 어느 정도 제도화 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연구가 진행된 때에 이미 대안공간이 미술계에서 하나의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는 주장이 있었음을 명시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 의사 대안공간들의 출현을 지적하고 이들이 대안공간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안성이 부재하고 기존 미술 공간의 활동들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안공간의 규정이 더 구체적으로 좁혀져야 하며 대안공간이 생산성 있는 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서울만이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 인사미술공간 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09)은 2009년 8월초 인사미술공간 재개관을 기점으로 내부 프로그램 및 지원 대상의 적절성, 효과의 효율성 등을 재검토했다. 해당 시기에 지원 프로그램과 인프라의 측면에서 상당한 양적 성장이 있었음을 사전에 밝히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 이선영은 공공기금이 집행되는 전시는 이미 공공영역에 속하게 되며, 그 영역에서 요구되는 것은 대중과의 성공적인 소통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소통 능력은 작품에 부가되는 어떤 외적인 측면이 아니라, 작품의 내용과 형식 그 자체에 내재된 질적 요소로서 작용하기에 지원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지원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가 또는 기획자는 끊임없이 공적 언어로 자신을 검증해야만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는 작품이나 작업의 논리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나, 형식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결국 전시를 주최하는 제도적 기관에서도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각급 지원 제도의 차별성이 얼마나 담보되고 있는가는 회의적이며, 각 지원기관의 선정 기준이 모호해질 때, 개성적인 신진 작가의 전시 기회는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된다고 말했다.
- 이은주는 인사미술공간이 기존의 미술관 운영체제에서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현장의 신속한 움직임을 수용해 제도권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공적공간 내의 대안적 기능을 담당하고 선도해 온 독특한 위치라고 말했다.
- 여기서 대안적 기능의 '대안'은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권 미술계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에 따른 '대안'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인미공의 운영방안도 현재 미술계에서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주시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 대안공간들의 활약에 힘입어 신진 작가들이 주류 미술계로 진입하고 안착하는 시기가 확연히 빨라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 또한 신진 작가들의 양적 팽창과 함께 떠오르는 문제점은 전체적인 전시의 질적 저하, 일회성 소모품처럼 지나치게 많아진 전시들이라고 주장했다. 대안공간의 프로그램들이 주류 미술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카이브 형태나 프로젝트형 작업

들, 개념적 작업들이 넘쳐나고, 애초의 실험적 기능은 사라진 채 그 자체가 패션 아이템과 같은 일회성 효과로 변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12). 따라서 지원 프로그램들의 유행에 의해, 트렌디한 프로젝트의 실현이나 작품 판매를 위한 공간이 아닌, 자기 작업을 정직하게 보여줄 수 있고 전문 큐레이터와 함께 일하면서 작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 여타 대안공간이 펀드레이징의 어려움과 사업수행 인력의 부족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여러 제약을 가지는 것과 달리, 안정된 공적기금으로 운영되는 인사미술 공간은 미술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미술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작가군에게 베이스캠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

□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 조사 및 현황 분석(2018)은 먼저 비영리전시공간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자 했다. 또 기초 조사와 FGI 조사, 여타 비영리전시공간 관련 지원 사업을 비교 분석해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정리했다.

- 비영리전시공간의 개념은 선형적으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의 실천을 통해 수행적으로 정의된다고 설명했다.
- 비영리전시공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화랑들로부터 구분되는 전시 공간을 말하는데, 연구는 이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익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 비영리전시공간을 민간 비영리전시공간과 (준)공공기관-비영리전시공간으로 분류했다. 비영리전시공간들의 최근 동향을 '공간에서 활동으로: 비영리 전시공간의 분화'로 설명하고 그 세부를 ① 대안적 미술시장 유통 구조를 모색할 필요 ② 운영상 난점과 변화의 양상을 추적할 필요 ③ 가임 공간을 고려하는 비영리전시공간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 ④ 비영리성에 기반한 예술의 공공성을 증진할 필요로 정리했다.

## 제3절 소결 - 인사미술공간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쟁점들

- 한국에 수입된 대안공간의 개념 정의는 연구자마다 상이하나, 공통적인 핵심 가치로 ① 제도적 관습과 상업 갤러리 사이에서의 자율성 ② 기성 관습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보로 진취적인 예술 실험을 감행하는 태도가 제시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세부적 특성으로 ① 비영리성 ② 예술가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공동체성 ③ 장소특정적 미술과의 상호 관련성 ④ 전시 방법 및 매체의 다양성 ⑤ 신진 작가 발굴 기능 등이 있다.
- 인사미술공간의 설립은 단순히 유용한 전시 공간이 미술계에 제공된 차원을 넘어, 대안공간에 관한 당시의 관심과 논의를 제도적 차원으로 이끄는 변화를 촉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인사미술공간 설립을 기점으로 관련 담론 생성과 정책 지원이 크게 증가한 것, 인사미술공간이 개별 신진 작가들을 선발해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공간을 변별해 네트워킹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 이에 더하여 인사미술공간의 다른 핵심 역할로 분석된 것은 “대안공간의 대안”으로서의 기능이다. 인사미술공간은 국공립 기관이 ‘직영’하는 공간으로서 상대적으로 충분한 예산과 인력 투입, 장기적 비전 수립이 가능한 환경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일선에서 선도하고 지탱했다. 이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개별 대안공간이 기획하거나 실현할 수 없는 맞춤형 지원과 육성-큐레이팅, 크리틱, 홍보, 멘토링 등이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조합돼 전략적으로 실행되었으며 이것이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피드백되었음을 지적한다. 또 인사미술공간이 설립 초기 시행한 ‘신진 작가 수첩’ 등의 프로그램은 이후 AYAF와 기타 제도권 작가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도된 유무형의 아카이브 사업이 제대로 지속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 상술한 차원에서 인사미술공간의 활동은 대안공간 담론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되는 일련의 흐름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를 관통하며 펼쳐진 사회경제적 변화, 그리고 인구구조상의 요인은 ① 대안적 가치를 무한정 갱신하기 어려운 정체성의 문제 ②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을 높이지 않고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자원 조달의 문제를 일선 대안공간에 야기했다. 또 대안공간을 통해 성장한 작가들이 점차 주류에 편입되었으며 신진 작가 발굴과 전시 지원 기능이 세분화돼

기타 기관과 레지던시로 이전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미술계의 변화된 구조 속에서 2010년대 한국 미술은 ① 제도가 아닌 현실의 장을 자각하고 이에 반응하는 작가들의 활동 ② 조건특정성과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예술적 실천 ③ 예술 생산자와 예술 소비자의 역할이 중첩되며 미술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을 재고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 제4장

### 인터뷰 및 사례 조사

#### 제1절 FGI 조사

1. 목적과 설계
2. 그룹 1
3. 그룹 2-1
4. 그룹 2-2
5. 요약

#### 제2절 해외 대안공간 사례 조사

1. 목적과 설계
2. 조사 내용

#### 제3절 국내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조사

1. 목적과 설계
2. 조사 내용
3. 요약

## 제1절 FGI 조사

## 1. 목적과 설계

## □ 조사 방향

-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는 문헌 연구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미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인터뷰 그룹은 2개로 구성하였으며, 그룹 2는 보고의 편의상 다시 2-1과 2-2로 구분하였다. 총 인터뷰 인원에서 작가의 비율을 50% 내외로, 나머지를 기획자와 비평가로 설정했다.
- 본 연구서에는 그룹 1과 그룹 2-1의 인터뷰 내용을 간추려 수록하며, 그룹 2-2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별도 제출한다. “5.요약”에선 세 그룹의 결과를 모두 포함해 다시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 □ 그룹 1

- 인사미술공간 프로그램 경험자(인사미술공간에서 개인전, 워크숍, 기타 매칭 프로그램 등을 경험한 자) / 상기 항목을 충족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자
- 고재욱, 김도희, 권혁규, 안소연 (모더레이터: 김나현)
- 2019년 12월 6일 오후 1시 롤링핀 북촌점 진행

## □ 그룹 2

- 인사미술공간 프로그램 비경험자 / 1990년 이후 출생자 / 최근 1년 사이 개인전을 진행한 자 / 최근 2년 사이 3회 이상 제도권 작가 지원 프로그램 또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 장진택은 ‘현대자동차 제로원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참여하였으며 출생년도 제한에서 예외로 함
- 김민희, 양윤화, 장진택 (모더레이터: 윤율리)
- 2019년 12월 5일 오후 1시 스타벅스 북촌로점 진행

## □ 질문 설계

- 현황: 인사미술공간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 현황: 인사미술공간의 물리적 공간에 관한 선호도는 어떠한가?
- 현황: 인사미술공간 입지에 관한 선호도는 어떠한가?
- 커뮤니케이션: 인사미술공간의 소식을 얼마나 자주/자세히 접하고 있는가?
- 커뮤니케이션: 어떤 경로로 그러한 정보를 얻는가?
- 정체성: 인사미술공간과 다른 대안공간·신생공간 사이의 변별점은 무엇인가?
- 제안: 인사미술공간이 운영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 제안: 최근 제도권 지원 프로그램의 동향과 한계점은 무엇인가?

## 2. 그룹 1

### □ 고재욱, 김도희, 권혁규, 안소연 (모더레이터: 김나현)

- 인사미술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 좋아하는 작가들의 데뷔전을 볼 수 있었던 공간. 공부와 활동을 지속하며 꾸준히 찾게되던 곳. 최근 모습은 예전과 다르게 그다지 젊지 않은 느낌.
  - 작가로서 전시를 할 때 가장 잘 데뷔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음. 등용문의 역할.
  - 예산, 설치, 철수 등 여러 측면에서 보다 여유있고 전문적으로 전시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경험. 최근 (인미공) 전시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음.
  - 무척 특별한 포지션(기관이 운영하면서 현장에 가까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잘 지켜지고 활용되기를 바라게 되는 곳.
  - 과정중심 공간으로 의의가 있었던 곳. 여러 주체가 복잡하게 모여 프로젝트를 도모했으며, 그 과정의 불확실성을 즐김. 제도권 기관이 가진 힘을 최대한 활용해 신진들과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했음. 최근엔 결과로서의 '본다'는 경험에 더 집중하는 듯한 느낌.
-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인사미술공간은?

- 주택 구조라는 점이 특징적. 종로에 있지만 적당히 동떨어지고 고립된 느낌. 음습하지만 그 이질성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공간.
  - 추워서 고생한 기억이 많음. 층이 나누어진 구조는 작업을 풀어가며 여러 실험을 전개하는 데 유리함. 전기배선 등 기본적인 시설은 점검 필요.
  - 예전에는 역할과 책임이 확실한 담당자·전문가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마치 주인 없는 공간처럼 느껴짐. 공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선 예전처럼 이들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
  - 공간의 제약이나 한계점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생각함. 그러나 어느 순간(시스템과 인력이 부재하게 되면서) 그냥 ‘물리적인 장단점’ 정도만 남겨진 느낌. 최근 더 젊은 세대가 느끼는 인미공의 ‘재미없음’ 역시 비슷한 맥락일 것.
- 더 자세히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변별한다면?
- 프로그램의 부재, 기획의 부재, 운영의 부재를 실감함. 전시 공간이 예전보다 다양해진 상황에서 인미공이 단순히 ‘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만 남아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
  - 90년대 이후 세대는 인미공을 ‘어느 정도 경력 있는 사람들이 전시하는 곳’ 정도로 인식. 그 시차를 헤아릴 필요가 있음. 굉장히 빠르게 미술계가 바뀌지만 그 경험을 공유하는 폭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문제.
  - 공공기관으로서 아르코·인미공이 해야 하는 일은 (전시·프로그램 참여 작가를 위한) 가시성을 만드는 일 이상일 것. 지금은 결과 발표에만 방점을 찍고 있으며, 지원을 전제로 기회를 서열화하는 경향이 보임.
- 무엇이 원인인가?
- 너무 잦은 프로그램 변화. 변화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바뀐 시스템에 적응할 여지조차 없는 듯함.
  - 2017년부터 예술창작아카데미 결과물이 근 2년간 개인전 형태로 발표되면서 ‘발표장’ 이미지가 고착화된 느낌.
  - 신생공간의 역할이 인스타그램처럼 반짝반짝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갤러리, 기성 대안공간, 제도기관은 이런 경향에 휩쓸리지 않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결과중심의 송출은 그런 지점에서 아쉬움.

- 과거 인사미술공간은 때로 비난에 직면하더라도 기꺼이 이슈와 언어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작가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음. 현재 과정중심을 표방하는 공모를 내고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창작자가 설계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애초에 이 공간을 운영하는 취지와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
  - 아르코미술관과 지나치게 가깝게 운영되는 측면이 인미공의 위상을 약화시킨다는 생각이 있음.
- 해결을 위해 고려할 것이 있다면?
- 비슷한 정책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미술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상황. 이미 청년 작가 쪽은 지원이 (미술계의 파이 대비) 다소 과잉된 상황이며, 그마저 전시 형식으로만 지원한다는 것은 왜곡.
  - 정말 중요한 것은 (전시 공간이 아니라) '창작이 가능한 공간'임. 전시 공간, 학교, 레지던시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아야 함. 그저 돈을 주고 돈을 쓰라는 방식은 잘못된 것.
  - 신진에서 벗어나고 점차 특정한 경험을 반복하면서 가지게 되는 회의감이 있음. 결국 교류할 수 있는 틈이 필요하다는 생각. 지원금을 얼마 주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작가로서 체감될 것.
- 새로운 운영/프로그램 모델을 상상해보면?
- 과거 유행에 편승해 (다학제적인 모델을 도입했던) 학교들이나 학과들의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 시각예술은 근본적으로 다층적인 것. 따라서 공간과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고 이로부터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장의 작가들에겐 플랫폼 모델이 자칫 '스타일'처럼 인식되기도 함.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내 작업을 어떻게 어필할까 고민하게 된다면 순서가 잘못된 것.
  - 기금, 전시, 결과 보고 등 다양한 이벤트는 넘치는데 미술계 전체는 빈곤하고 가난한 상황임. 그것을 잘못 가속하지 않는 방식이 되도록 고민 필요함.

- (단순히 전시 하나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미공 프로그램 자체가 일종의 기획이었던 점을 과거의 유산으로 활용해야 함. (최근 기금 사업들이 서로 비슷하게 평균화, 계량화, 획일화되는 와중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미공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람.
  - 미술 환경이 점차 단순하고 납작해지는 상황 속에서 작가들 역시 그러한 단기적 이익을 거부할 수 있는 전향적 태도를 가져야 함. 인미공은 (기관이 운영하는 대안공간이란 점에서) 존재 자체가 모순된 곳. 제도를 잘 아는 기관으로서 그것을 보완하는 ‘희망’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람.
- 심사 측면에서 개선할 것이 있다면?
- 공모 및 지원 프로그램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심사의 기준을 함께 명확히 해야 함. 심사받는 이가 그것을 예측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
  - 농담처럼 지나치게 가볍게 진행되는 심사 문화에 대한 아쉬움 있음.
  - 경직되고 존중 없는 심사문화가 지양되고 기준이 명확한 토의의 장이 되어야 함.
- 기타 제언
- 미술 현장에 언제든 인미공이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함.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인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적절한 의지의 표명이 대내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
  - 하나의 방향성을 꾸준히 지켜가며, 대안공간·신생공간 담론 이후 인미공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 필요.

### 3. 그룹 2-1

#### □ 김민희, 양윤화 (모더레이터: 윤율리)

- 평소 인미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 젊은 작가들에게는 관심 바깥인 것이 사실. (제도에 잘 들지 못하는) 90년대생으로선 진입 장벽이 높고, 안전한 전시를 추구하는 공간이라는 인식 있음.
  - 학부 때의 경험으로는 나이가 많은 ‘선배들’이 전시하고 싶어 했던 곳. 지금도

- 그 정도의 인상으로 기억되며 큰 관심 없음.
- (개인전을 위해) 여러 차례 컨택해 보았으나 잘 되지 않았던 경험. 다만 이러한 선호는 공간에 관한 것이었고 인사미술공간의 상징성이 고려되지는 않았음. ‘한 번쯤 써보고 싶지만 나는 쓸 수 없는 공간’.
  - 인미공에서 ‘낮선 신인’이 전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이런 관점에서 보수적인 공간이라는 평가에 동의함.
- 전시 공간으로서 인미공의 장단점은?
- (개인 작업만으로 채우기엔) 너무 넓어서 부담스러운 환경. 전시를 위해 상대적으로 더 작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른 전시공간을 먼저 고려하게 됨.
  - 층이 나뉘어 있는 구조적 측면이 흥미로움. 신인의 입장에서 작업을 풀어가며 배울 수 있는 게 많을 것.
- 프로그램에 지원했던 경험이 있다면/없다면 그 이유는?
- 작가 워크숍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는 아직 학생으로 재학중일 무렵임. 그 이후에 시작된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다른 기금 프로그램 대비 후순위로 생각되었음.
  - 창작산실은 경력이 있어야 쓸 수 있고, 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은 서울문화재단과 중복수령이 불가능해 고려 대상이 아님.
  - ‘서울문화재단에서 최대한 받고, 더 받을 수 없을 때 아르코를 써야한다’는 인식이 신진 작가들에게는 일반적.
  - 지원서 작성 난이도가 (타 지원 프로그램 대비) 높음.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을 따지게 됨. 그러나 절차가 꼼꼼한 만큼 프로그램이 더 충실할 것이라는 기대는 있음.
  - 기본적으로 인미공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접하기 어려웠음.
- 평소 인미공의 소식을 접하는 방식은?
- 소식을 제대로 알기 어려움.
  - 전시에 참여한 관계자로부터 직접 전해 듣고 전시를 관람한 경험 있음.
  - 직접 검색해서 찾아본 개인전이 몇 개 있으며, 주로 작가가 인스타 피드에

공유한 이미지가 흥미로워서 관람을 결정하게 되었음.

- 인미공의 접근성은?
  - 국립현대미술관 등 근처에 다른 전시가 많아 함께 동선을 짜기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주변 환경이 보행에 나쁘지 않음. 입지와 무관히 잘 들르지 않게 됨.
- 기타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을 때의 경험을 돌아본다면?
  - 하나의 프로젝트를 A-Z까지 계획, 실행,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이 도움이 되었음.
  - 지원금을 통해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작업을 확장할 수 있었고, 스케일을 키워볼 수 있었음.
  - 작업이 하나의 이슈로만 반복해 읽히는 답답함 존재.
  - 작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경험.
  -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렉처가 제공되어 좋았음.
- 새로운 운영/프로그램 모델을 상상해보면?
  - 지금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1년짜리 전시 준비'라고 생각됨. 일회성 전시를 통해 혼자 작품을 발전시키는 게 쉽지 않음.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을 것.
  - 혼자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감당하기보단 자연스럽게 협업의 지점이 포용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함.
  - 네트워킹에 대한 막연한 믿음은 환상에 불과함. 서로 도움이 되는 명확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함.
  - 글쓰기, 정산, 포트폴리오 구성, 미술사 등 실질적인 공부 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좋을 것.
  - 공간에 대해 연구 및 시뮬레이션 경험을 필요로 하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바람.
  - 다른 동시대 예술의 영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크게 배우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함. 또 그만큼 내 영역의 향유자가 늘어나는 것이라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 사람이 모일 때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또 (렉처 등에 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숙련도가 다른 만큼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리라 생각됨.
- 서교예술실험센터의 경우, 여러 툴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매체가 기술이 될 때>)을 진행 중이며 주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음.
- 심사 측면에서 개선할 것이 있다면?
  - 심사위원을 구성시 남녀성비의 균형.
  - 음식물을 섭취하며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심사에 임하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반감 있음.
  - 논리적인 기획서와 인터뷰가 주로 살아남는 현실. 심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개인전들은 대부분 평균적이고 매끈한 결과물로 수렴함. 논쟁적인 작업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

#### 4. 그룹 2-2

##### □ 장진택 (모더레이터: 윤율리)

- 그룹 2-2 인터뷰는 주로 플랫폼형 예술지원 프로그램들의 현황과 실무에 관해 이루어졌으며, 당사자 및 주무기관과 협의하여 원문을 별도 제출한다.

#### 5. 요약

##### □ 인사미술공간에 대한 일반적 인식

- 과거
  - 제도권 기관이 운영하는 대안공간으로서 특별하고도 모순적인 정체성을 가진 곳.
  - 즉 제도를 가장 잘 아는 주관자가 그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티-제도의 역할을 자임하였으며 미술계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호응함.
  - 과정중심 공간으로,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려는 젊은 미술인들의 '사랑방'.
  - 효율적인 등용문이 된 공간으로 흥미로운 데뷔전을 기대할 수 있었던 곳.

-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던 곳.

- 현재

-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작가들의 전시를 보수적으로 개최하는 곳.
- 신진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고 다가가기 힘든 곳.
- 서울문화재단과 겹치기 때문에 약간의 경력 이후 고려하는 것이 이익.
- 젊은 세대들에게는 특별한 상징성이 없다는 인식.
- 결과중심 공간으로, 아르코 예술창작아카데미를 위한 발표장.
- 최근 몇 년간 자체 기획이 침체돼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대관 공간이라는 인식.

□ 물리적인 장소·공간에 관한 인식

- 입지

- 종로 한복판에 있으나 적절히 고립되어 있어 독립성을 가짐.
-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지 않지만 인근 미술관, 갤러리 등과 연계해 방문하기 용이함.
- 종합적으로 만족스러운 입지라는 인식.

- 전시 공간

- 주택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흥미로움이 존재함.
- 층별 구조와 계단 등 인상이 매우 강하고 다루기 쉽지 않음. 그러나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확장하고 작가에게 유용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 냉난방, 전기 배선 등 일부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함.
- 공간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상주 인력을 반드시 필요로 함.

□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관한 인식

- 홍보

- 메일링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특히 젊은층이 주로 사용하는 SNS 매체에서 영향력 없음.

- 소식을 자주 팔로잉하는 사람들은 주로 직접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는 방식을 이용.
- 기타 브랜딩
  - 아르코와 분리된 별도의 브랜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웹 아카이빙을 통한 자료 축적 및 정보 제공 필요.
  -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능의 부재로 인해 인미공에 대한 기억과 인식은 세대와 그룹에 따라 매우 파편적인 것으로 나타남.
  -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 다양한 소문과 함께 확산되는 경향. 이러한 현상에 대해 내부적 각성과 재고 필요.
- 콘텐츠 측면에서 실질적인 장점과 단점
  - 공모 방식
    -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이력의 문턱이 높은 편.
    - 지원서 양식과 제출 방식이 어렵고 복잡함.
  - 프로그램
    - 내용면에서 타기관 대비 인텐시브한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의 결과가 우수하지만 그것을 위해 다소 수직적인 개입이 발생함. 참여자의 서열화 문제가 지적됨.
    -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 내 멘토 시스템의 경우 호불호가 존재.
    - 프로그램이 자주 변경되어 정확한 목적이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원인으로 지목됨.
  - 기타
    - 프로그램 진행과 관리 등을 수행할 전담 인력의 부재.
- 그 외, 제언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응답
  - 신진 작가가 필요로 하는 경험
    -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까지 핸들링하되, 큐레이터, 기획자 등과 만나 작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협업의 경험.
    - 적절한 예산 투입으로 작업의 스케일을 확장하는 경험.

- 작품이나 전시만을 결과로 내놓는 일회성 수행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의 경험.
  - 글쓰기, 포트폴리오 작성, 세무 및 회계, 계약 등 작가 활동에 필요한 실용적 스킬 학습.
  - 미술사 스터디
- 심사와 평가
- 심사위원 성비의 적절한 구성 필요.
  - 충분히 언어화할 수 없는 작업을 평가하기 위한 토론의 장 필요.
  -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을 분명히 공지함으로써 심사를 예측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함.
  -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자에게 최대한의 자율성 부여.
  - 심사 과정에서 인미공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무진들의 영향력 강화.
- 기타
- 프로그램이 하나의 기획으로 정체화되어야 할 필요성.
  - 즉 '예술가 개인'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해결하지 못하는 빈틈을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
  - 대안공간(또는 신생공간) 이후의 맥락에서 인사미술공간의 새로운 정체성에 관한 고민 필요.
  - 프로그램 설계, 예산 증빙, 결과 평가 등에 있어 인사미술공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 즉 더 높은 자율성이 현장에 부여되어야 함.
  - 모더레이터 및 관리자의 상시적 개입과 그 역량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충분한 투자 필요.
  - 내부 참여자들을 서로의 전문가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구성 전략.

## 제2절 해외 대안공간 사례 조사

### 1. 목적과 설계

#### □ 조사 설계 방향과 목적

- 인사미술공간의 특수성을 국외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향후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 설계에 있어 유용한 참조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 지원 체계의 내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보다 자유로운 형식을 고민하며 신진 작가들의 실험을 수용하고 있는 대안플랫폼들을 살펴본다.

#### □ 조사 범위

- 독일 베를린 DAAD(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 독일 베를린 KW(Kunst-Werke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 미국 뉴욕 Eyebeam
- 영국 리버풀 FACT(Foundation for Art and Creative Technology)
- 오스트리아 린츠 Ars Electronica
- DAAD, Eyebeam은 2006년 5월 16일 인사미술공간이 주최한 포럼 <선택의 조건>에서 사례로 언급된 바 있으며 그 현황을 리서치하였다.

### 2. 조사 내용

#### □ 독일 베를린 DAAD

- 독일 교육부와 외무부 산하 기관인 DAAD(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는 세계 유사 국가예술지원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지명도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다.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총 6개가 있으며, 경력 제한을 두지 않은 프로그램은 그중 3개가 있다.
- 1963년부터 시작된 DAAD의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프로그램(Berliner Künstlerprogramm; Artists-in-Residency)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국제 프로그램 중 가장 유서 깊은 것으로 해마다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에서 18명의 작가들을

초빙하여 베를린에서 1년간의 체류와 활동을 지원한다. 작곡, 순수예술, 문학 분야는 12개월 과정이며 영상예술은 6개월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1년의 거주경험은 작품 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자극이 되고, 예술가들은 그 기간 동안 혹은 그 후에 아이디어와 영감을 책, 전시, 콘서트, 영화 등을 만든다. DAAD는 방송, 국립미술관, 역사박물관, 필름 페스티벌 등 다른 기관과 연계해 작가들의 프로젝트를 기획, 지원, 유통, 관리한다.
- 초빙된 작가들과 지역미술계가 서로 자극이 됨으로써 작가들이 체류기간 이후 베를린에 머물거나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교류의 토대를 만든다. 지금까지 800여 명의 작가들이 거쳐 간 DAAD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작가 뿐 아니라 교수와 전문가 초빙으로 오늘의 베를린 문화번영을 선도하고 있다.
- 주목할 점: 국내 대부분의 예술가 지원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1년 단위의 사업을 진행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전시나 단순 발표 형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조직하며 그 네트워킹 틈새에서 발생하는 창의적 작업을 지원한다.

#### □ 독일 베를린 KW

- 베를린 KW(Kunst-Werke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는 1991년 클라우스 비젠바흐(Klaus Biesenbach)와 젊은 예술 애호가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KW는 현대 미술의 제작, 전시, 보급을 통해 동시대의 핵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이곳은 동시대 미술의 제시와 생산을 위한 공간으로서 영구적인 컬렉션을 소유하는 대신 유연성과 가변성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다. 요컨대 컬렉션에 기반하지 않고 예술적 혁신, 창조적인 프로그램에 치중해 동시대 미술계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끈다.
- KW는 제도적으로 'The Senate Department for Culture and Europe'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곳의 프로그램은 1996년에 설립된 후원조직 'The KW Freunde e. V.'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 주목할 점: 기관이 지닌 양질의 네트워크를 주목할 만하다. 박물관부터 미국의 PS1,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 등과 연계해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 전시를 통한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주류 대형 미술 기관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비평적 역할을 함께 도맡는다.

#### □ 미국 뉴욕 Eyebeam

- 미술과 테크놀로지의 교류 또는 연계를 촉진하는 비영리 미술기관 Eyebeam은 주와 시 차원의 공공미술자금으로 운영된다. 비디오, 컴퓨터, 퍼포먼스 등 기술을 활용한 실험적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작가들을 선발해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 기본적인 콘셉트는 아뜰리에다. 교육, 제작 스튜디오, R&D 랩 프로그램을 갖추고 작업 공간, 시설, 작업을 보조하는 인턴, 관련 전문가를 제공한다. 큐레이터, 작가, 학생간의 활발한 정보 교환과 대화를 통해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지원한다.
- ‘미래를 재형상화하기(Refiguring the Future)’: 2019년 오픈한 이 프로그램은 예술, 과학, 기술 사이의 계속되는 불화에 대한 응답이다. 35명의 예술가들이 전시, 컨퍼런스,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고, 뉴욕에서 약 5,000명의 관객들이 방문했다. 이 프로그램은 동시대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뿌리를 다시 모색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페미니즘, 퀴어 이론, 탈식민주의, 인종이나 장애인 혐오에 대한 반대 등을 화두로 제안하면서 과학, 기술, 예술, 인류 사이의 관계를 고민하고자 했다.
- ‘저널리즘의 미래를 위한 아이빔 센터(ECFJ, Eyebeam Center for the Future of Journalism) : 2019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예술가를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초대하려는 시도다. ECFJ는 특히 기술과 사회 주변의 이야기들이 발화되는 방식을 재상상(reimagining)하는 데 주목하는 작업들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총 7개의 결과를 발표했다. 가령 첫 번째 결과였던 <Goodbye Big Five>는 기술 거인들(Tech Giants)-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차단하는 VPN을 만드는 작업이었고, 6번째 결과였던 <The Heroines of America’s Black Press>의 경우 미국 저널리즘 영역에서 일했던 여섯 명의 흑인 여성 초상화를 다시 그리며 그들의 업적을 밝혀내는 작업이었다. 가장 최근 발표된 <What Atlanta Can Teach Tech About Cultivating Black Talent>의 경우 인공지능을 다루면서 어떻게 기술이 더 다양한(혹은 재현불가능한) ‘그룹’들을 환영할 수 있는가 고민했다.
- 주목할 점: Eyebeam은 기관이 목표로 하는 바가 매우 명확하며 모든 프로그램이

그 목표의 성취를 위해 유기적인 지향을 가진다. 단지 신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상상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나 평등, 탈식민주의와 자본주의 등을 심도 깊게 고찰하며 동시대의 주요 화두를 견인하려 시도한다.

#### □ 영국 리버풀 FACT(Foundation for Art and Creative Technology)

- 2003년 설립된 리버풀의 FACT는 디지털 문화를 탐색하고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는 미술 전시와 필름을 후원한다. 작가들이 커리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 과학자, 기술자, 진보적인 사상가들과 협력할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예술 프로그램과 소통할 기회를 준다. 16년 동안 350개가 넘는 뉴미디어 아트와 디지털 아트 전시를 선보였다. 매년 두 개의 시즌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이슈에 신속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2019년 가을/겨울 시즌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날로 커져가는 기술의 효과를 주제로 다루면서, VR과 AI, 도자와 게임 디자인을 매체로 젠더 정체성의 재현을 다루는 전시, 투어, 토크, 워크숍을 개최했다.
- ‘디지털 대사관(The Digital Ambassadors)’: 실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8년 겨울 프로그램 중 개설되었다. 시간여행, 태양열 기술 등 친숙한 주제를 지역 대학과 연계해 물리학, 새로운 기술, 우리 일상생활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나아가 이들을 FACT의 전시 해설사로 고용해 습득한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주목할 점: FACT는 특히 리버풀 주민들과의 협업이 두드러진다. 기술을 특정 전문가들만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그들을 전시에 고용하는 방식은 이러한 FACT의 철학을 잘 드러낸다.

#### □ 오스트리아 린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 1979년 설립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예술, 기술, 사회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혁명적인 가능성을 고민한다. 머신러닝, 디지털 휴머니즘, 디지털 사회 등을 기초로 민주주의, 평등, 자유, 인권 같은 가치를 함께 다루기 위해 예술가와 과학자, 개발자, 디자이너, 기업, 행동주의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을 한 데 모으고 그 네트

워크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동력으로 창조를 모색한다.

- ‘퓨처 랩(Future Lab)’: 예술과 리서치를 위한 아뜰리에이자 랩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플랫폼이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미디어 건축, 인터랙티브 기술, 미적 표현의 새로운 형태 등을 연구한다. 예술적이고 실험적인 형태의 미래 시나리오를 투사해 보는 것도 이 연구실의 주 목표 중 하나다. 특히 ‘스팍셀 리서치(Spaxels Research)’는 드론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드론 경기나 드론을 활용한 도시의 시공간 디자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청각 문화 리서치(Auditory Cultures Research)’는 심리학자, 음악이론가, 미디어 아티스트가 그룹을 구성해 어쿠스틱 사운드-몸-환경의 인터랙션을 연구하였다.
-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2020’: 예술과 기술, 사회를 위한 축제로 1년에 한 번씩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개최된다. 전시, 콘서트, 스크리닝, 컨퍼런스, 워크숍, 오픈 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2019의 경우 “상자 밖 - 디지털 혁명, 중년의 위기(Out of the Box - The Midlife Crisis of the Digital Revolution)”을 슬로건으로 5일 동안 16개의 장소에서 총 548개의 이벤트를 개최했다. 특별히 인간과 지능을 가진 기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그리고 이 상호작용이 우리의 자기인식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를 탐구하였다.
- 주목할 점: 매우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주제와 매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상설 프로그램, 그리고 ‘디지털 혁명’이라는 긴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조화가 강점이다. 즉 장기적인 목표와 동시대 이슈들을 빠르게 주목하는 단기 프로그램을 조합해 예술적/사회적 흐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제3절 국내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조사

## 1. 목적과 설계

## □ 조사 설계 방향과 목적

- 주관처별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약한다.

## □ 조사 범위

- 국내에서 신진 작가(개인 및 단체), 기획자, 비평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 5개 주요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한다.
- 조사 항목은 사업 구성, 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심의방법 순으로 나누었다.
- 주요 국공립 미술관 중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의 프로그램을 조사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조사 결과는 유의미하게 선행된 프로그램이 없어 생략하였으며, 서울시립미술관 조사 결과는 “2.조사 내용” 가장 마지막 항목으로 기입하였다.

## 2. 조사 내용

## □ 사업 목적

기관명	사업명	사업 목적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	예술창작아카데미 예술인력육성	차세대 유망 예술가가 다양한 창작 소재를 개발하고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수준 높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과정 지원. 선정 차세대 예술인들 간 네트워크를 지원을 통해 창작 소재 확장 및 잠재적 협업 파트너 모색 지원.
	청년 예술	기획전시지원

	가 지 원	전시사전 연구지원	청년예술가의 창작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현장에 대한 진입 장벽 해소.
		비평발간지원	청년예술가의 창작 역량 강화 및 예술 현장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예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지원 체계 기반 마련.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은 청년 예술가를 최초 지원.
예술 경영 지원 센터	작가공모 예비전속작가제 지원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을 위해 화랑과 전속계약을 원하는 작가를 모집.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지원		시각예술 분야 비평 원고료 현실화 문화 정착을 통한 비평인력 전문화를 제고하며 우수 비평문 양산과 신진 비평 인력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서울 문화 재단	예술 창작 지원	창작활동지원	신진 예술인 지원을 통해 예술인으로서의 직업세계 형성.
		창작준비지원	구체적인 작업계획 수립 전 준비 및 구상 단계의 활동 지원.
	예술 기반 지원	창작 작업실 연습실 지원	예술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반 요소(창작-활동주체, 공간, 네트워크, 비평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지원사업. * 2020년에는 2월경 2차 공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
		문화예술관련 연구지원	
		비평지원	
기타			
인천 문화 재단	예술 표 현 활 동	시각예 술	시각예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창작활동 지원.
		역량강 화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 역량과 예술성·전문성 강화.
		인천문 화예술 연구	인천지역 문화예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연구모임을 지원하여 참신한 기획 및 이론 발굴.
	신진 예술가 발굴-지원 바로 그 지원	경력이 일천한 신진예술가의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을 도움과 동시에 자생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후속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사업.	

		인천 예술인 생애 주기 맞춤형 지원	인천예술인들의 활동주기에 초점을 두어 장르 중심 예술표현활동사업과 달리 예술가들의 경력별로 나누어 지원하고자 함. * 청년 유망, 중진, 원로로 구분.
경기 문화 재단	경기예술활동 지원		도내 시/군 예술인/예술단체의 기초예술분야 예술활동 지원
	경기예술창작 지원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되는 예술인/예술단체의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창작 지원 강화 및 지원분야별 성과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발표, 유통 지원 사업 체계 구축.

#### □ 지원 대상

기관명	사업명		지원 대상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	예술창작아카데미 예술인력육성		만 35세 이하 개인. 학부 재학생 지원불가(휴학생 가능). 만 35세 이하 예술가이자 작가의 경우 기획전 및 단체전 2회 이상(개인전 1회 이상) 참여한 자, 큐레이터 경우 전시기획 및 연구경력이 2년차 이상인 자.
	청년 예술 가 지원	기획전시지원	만 39세 이하로 재·휴학생이 아닌 청년 예술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은 청년 예술가. * 2020년 전시사전연구지원 유형 선정자의 사업에 한하여 2021년 기획전시지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전시사전 연구지원	
		비평발간지원	
예술 경영 지원 센터	작가공모 예비전속작가제 지원		2020년 기준, 만 39세 이하로 전속계약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작가. * 단, 국공립 미술관 전시 혹은 레지던시 경력이 있을 경우 만49세까지 가능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지원		비평가: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각예술 비평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필자 개인 및 그룹(최대 4인). 매체: 최근 2년 이상 시각예술 비평문 및 기획기사를

			고정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최소 2회 이상(최대 4회) 연재 원고 게재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시각예술 전문 매체 및 플랫폼
서울 문화 재단	예술 창작 지원	창작활동지원 (신진)	예술인으로 활동 중이며, 예술계에 진입하여 예술인들과 분야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하는 단계. 예술인 내적으로는 본인의 작업 철학과 방향을 찾아가는 단계.
		창작준비지원	모든 예술인(개인창작자, 실연자, 기획자 등).
	예술 기반 지원	창작 작업실 연습실 지원	예술인 및 예술단체.
		문화예술관련 연구지원	
비평지원			
		기타	
인천 문화 재단	예술 표 현 활 동	시각예 술	예술인 및 예술단체, 연구자.
		역량강 화	예술인 및 예술단체.
		인천문 화예술 연구	비평가.
	예술 지원 팀	신진 예술가 발굴-지원 바로 그 지원	예술인 및 예술단체.
		인천 예술인 생애 주기 맞춤형 지원	[필수] 최근 3년간 3회 이상 창작활동 실적이 증명되는 문화예술인, 단체. [인천연고] 개인: 인천연고 문화예술인, 단체: 인천연고 문화예술단체(인천에서 2018년에 3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증명되는 해당 분야 문화예술인 및 단체).

경기 문화 재단	경기예술활동 지원		[공통]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예술 단체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예술 단체 중 가평, 과천, 광주, 구리,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양주, 양평, 연천, 의왕, 이천, 파주, 평택, 포천에서 활동할 예술인/예술단체
	경기 예술 창작 지원	유망작가	개인전 1회 이상이거나 그룹전 2회 이상 활동 실적을 보유한 작가 (1980. 1. 1. 이후 출생자)
		우수작가	최근 3년간 전시 실적이 있는 작가 (개인전, 그룹전 포함)
		경기작가	2019년 경기예술창작 지원 시각예술분야 선정 작가 중 제한 공모
	연구/번역/평 론	경기도 거주 또는 소재 기관 소속 전문예술 연구자, 이론가, 평론가. 단, 경기 지역 관련 연구 주제의 경우 연구자의 거주, 소속 제한 없음.	

#### □ 지원 규모

기관명	사업명	지원 규모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	예술창작아카데미 예술인력육성	시각예술부문 작가 4명, 큐레이터 2명 선발. [조사연구 지원금] 2백만 원. [중간발표·점검지원금] 1백만 원. [최종발표지원금] 작가: 최대 18백만 원, 큐레이터: 최대 25백만 원.	
	청년 예술 가 지원	기획전시지원	최대 5백만 원.
		전시사전 연구지원	최대 2천만 원.
		비평발간지원	최대 5백만 원.
예술 경영 지원 센터	작가공모 예비전속작가제 지원	[작가-화랑 자율 매칭 후 전속계약을 맺은 단체가 “참여단체공모”에 지원·선정시] 전속작가: 창작활동비 월 150만원(단, 지원금은 전속계약을 맺은 해당 단체를 통해 지급). 단체: 전속작가 프로모션을 위한 홍보비 (작가	

			1인당) 정액 250만원.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지원		비평가: 시각예술 연재 비평문 및 기획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지면 제공 매체와 매칭 후 원고 게재 및 원고료 지원(200자 원고지 1매당 20,000원, 회당 최대 200만 원, 50매 기준). 매체: 시각예술 연재 비평문 및 기획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매체-비평가 매칭 후 게재료(원고 편집료 등) 지원(오프라인 매체 원고료의 30%, 온라인 매체 20%).	
서울 문화 재단	예술 창작 지원	창작활동지원	최대 1,500만 원,	
		창작준비지원	200만 원 정액 지급(시상금 지급 방식).	
	예술 기반 지원	창작 작업실 연습실 지원	*2020년 2월 중 공고 예정.	
		문화예술관련 연구지원		
		비평지원		
기타				
인천 문화 재단	예술 지원 팀	예술 표현 활동	시각예술	개인전: 최대 700만원. 단체전 또는 기획전: 최대 2,000만원. 시각관련 출판: 최대 500만원.
			역량강화	개인: 최대 500만원. 단체: 최대 800만원.
		신진 예술가 발굴-지원 바로 그 지원	인천문화 예술연구	모임당 최대 700만원 지원. 활동비 사용 범위: 외부 전문가 사례비, 워크숍 진행비, 인쇄비, 자료구입비(전체 예산의 15% 범위 내) 등.
				최대 100만원. 우수 프로젝트 선별, 심사위원 또는 평론가에 의한 리뷰 제공. 지역예술가로 구성된 프로그래머의 사전 및 사후

			맞춤형 인큐베이팅. 종합 보고전 형식의 <바로 그 시장> 참여.
		인천 예술인 생애 주기 맞춤형 지원	최대 300만 원.
경기 문화 재단		경기예술활동 지원	최고 2천만 원.
	경기 예술 창작 지원	유망작가	7백만 원.
		우수작가	최고 2천만 원.
		경기작가	최고 3천만 원.
		연구/번역/평론	최고 1천만 원.

## □ 지원 내용

기관명	사업명	지원 내용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	예술창작아카데미 예술인력육성	<p>조사연구지원금: 조사연구와 관련된 지역 방문 답사비용. 연구·기획내용과 관련된 간행물 구입, 관람, 수강료. 연구자문비용. 회의실 및 연습실 장소 대관료. 조사연구 및 기획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비.</p> <p>중간발표·점검 지원금: 참여인력 사례비. 의상제작 및 무대소품비. 연습실 등 대관료, 악기 등 장비 임차료. 소품 및 작품 제작비.</p> <p>최종발표지원금: 작품 및 홍보물 제작비. 아티스트피(본인 창작 및 기획 사례비). 회계감사비용 및 상해보험가입비 등.</p>	
	청년 예술 가 지원	기획전시지원	전시 기획 및 연구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전시사전 연구지원	전시기획 및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개인전 제외, 성과확산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학술행사, 관람객 교육도 포함 가능).
		비평발간지원	원고료 및 작가 대담 등 관련 비평 활동비 및 출판 발간비 지원.
예술 경영 지원 센터	작가공모 예비전속작가제 지원	<p>사업기간 총 10개월, 연말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 전속화랑을 선정하여 차기년도 연속 지원, 전속작가 작업 활동 온라인 홍보, 미술은행 작품구입 추천 등.</p> <p>선정단체(자) 공통 의무사항: 사전 워크숍 및 결과공유 워크숍, 강의 프로그램 참석 필수, 전속 계약을 맺은 단체에 연 4회 작가 활동 리포트(서식 제공) 작성 및 제출.</p>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지원 시각예술 비평가의 기획 연재 원고 게재를 위한 매체-필자 매칭. 온·오프라인 매체는 지면을 제공, 필자는 연재 기획안 제출,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매칭. 최소 2회 이상의 기획 연재 비평문 및 기획기사 게재, 원고 분량 회당 200자 원고지 30매 이상.
서울 문화 재단	예술 창작 지원	창작활동지원	2020년 서울에서 진행되는 예술창작활동 및 작품제작·발표. * 발표형식: 서울 소재 내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개 발표. * 사업수행기간: 2020년 1월~12월.
		창작준비지원	조사·실험·연구 → 공유 → 피드백 등 준비단계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창작준비과정 모두 포함(리서치, 인터뷰, 실험 및 연구, 세미나, 워크숍, 연구보고회, 역량강화 워크숍 등). * 사업수행 기간: 2020년 5월~12월.
	예술 기반 지원	창작 작업실 연습실 지원	예술인(단체)가 창작활동(준비, 연습, 발표 등)을 위하여 임대 중인 공간에 대한 임차료 지원.
		문화예술관련 연구지원	
비평지원 기타			
인천 문화 재단	예술 지원 팀	예술 표현 활동	시각예술 예술 관련 연구서적 발간지원 및 연구모임 운영 등 연구 관련 활동 지원.
		역량강화	비평가 풀 구성 후, 당해년도 발표 작품(모든 장르) 대상 비평 진행시 사례비 지원.
		인천문화 예술연구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등 필요 수요를 고려하여 기획형 간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진 예술가 발굴-지원 바로 그 지원	시각예술분야 개인전, 단체전 또는 기획전, 시각 관련 출판 지원.  *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가능한 사업.	
	인천 예술인 생애 주기 맞춤형 지원	문학, 시각, 공연, 전통 등 단체 및 개인의 예술적 역량강화를 계획하는 전 장르 지원. 개인: 국내외 연수 주요 행사 참가 단체: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가능한 사업.	
경기 문화 재단	경기예술활동 지원	지원 대상 시/군에서 진행되는 기초예술분야의 모든 예술 활동	
	경기 예술 창작 지원	유망작가/ 우수작가	신작 창작 지원, 공동 전시 지원, 작가 워크숍 및 비평 프로그램 필수 참가, 성과 및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후속 사업으로 경기작가 개인전 지원.
		경기작가 개인전	경기도내 전시장에서 발표하며, 개인전 실비(기획, 제작, 도록, 대관, 운송, 홍보 등) 지원
		연구/번역/평론	예술이론, 예술사, 미학 등 연구/번역 서적 출간 지원, 시각 예술과 공연 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 지원

## □ 심사 방식

기관명	사업명		지원 내용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	예술창작아카데미 예술인력육성		1차 서류심사, 2차 PT 및 인터뷰 심의로 이루어짐. 사업과의 부합성 및 예술역량,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예술적 성취도 및 발전 가능성 고려.
	청년 예술 가 지원	기획전시지원	서류심사.
		전시사전 연구지원	
	비평발간지원		
예술 경영 지원 센터	작가공모 예비전속작가제 지원		지원신청 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작가는 별도의 심의 없이 2020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참여단체 공모”를 위한 작가(풀)로 선정하며, 작가-화랑의 전속계약은 자율적으로 체결. 전속계약 제의를 받은 작가는 원하는 단체를 최종 선택하여, 매칭된 작가와 단체는 문체부 고시.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전속계약 체결.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지원		별도의 심의 과정 없이 적격여부 확인 및 필자-매체 간 매칭, 한국 미술 관련 담론을 확장시킬 수 있는 우수 비평문 양산 기여 가능성 검토.
서울 문화 재단	예술 창작 지원	창작활동지원	서류 심사. 과거 활동 내역: 예술역량, 예술적 비전의 명확성, 성장 잠재력. 내년 활동 계획: 계획 내용의 예술성·독창성, 계획내용의 완성도.
		창작준비지원	* 2020년 2월중 예정
	예술	창작 작업실	1차: 행정심사.

	기반 지원	연습실 지원		2차: 전문가 서류 심의. 3차: 전문가 인터뷰(필요한 경우 프레젠테이션) 심의.
		문화예술관련 연구지원		
		비평지원		
		기타		
인천 문화 재단	예술 지원 팀	예술 표현 활동	시각예술	1차: 행정심의. 2차: 전문가 서류 심의. 3차: 전문가 인터뷰(필요한 경우 프레젠테이션) 심의.
			역량강화	1차: 행정심의. 2차: 전문가 서류 심의. 3차: 전문가 인터뷰(필요한 경우 프레젠테이션) 심의.
			인천문화 예술연구	1차: 행정심의. 2차: 전문가 서류 심의. 3차: 전문가 인터뷰(필요한 경우 프레젠테이션) 심의.
		신진 예술가 발굴-지원 바로 그 지원		수시 변경.
		인천 예술인 생애 주기 맞춤형 지원		행정심의와 전문가 심의로 절차가 진행되며, 서류심의와 인터뷰심으로 이루어짐.
경기 문화 재단	경기예술활동 지원		1차: 행정 심사. 2차: 서류 심의.	
	경기예술창작 지원		3차: 인터뷰 심의.	

#### □ 서울시립미술관의 신진 미술인 지원 제도

사업명	신진미술인 전시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프로그램 명칭 변화	2008~2012	SeMA Young artists
	2013~2015	Emerging Artists: SeMA

	2016~2018		Emerging Artists & Curators
지원사항	신진 작가의 생애 첫 개인전 직접 경비 지원, 외부 큐레이터와 작가 간 1:1 멘토링 프로그램, 워크숍, 미술관 자체 홈페이지홍보, 언론 보도.		
선정 인원과 지원 규모	연도	인원	지원규모
	2008	25명	1200만원 내외.
	2009	26명	1200만원 내외.
	2010	22명	1200만원 내외.
	2011	27명	1000만원 내외.
	2012	26명	1000만원 내외.
	2013	28명	1000만원 내외.
	2014	17명	1400만원 내외.
	2015	16명	1400만원 내외.
	2016	작가 14명, 큐레이터 2명	1400만원 내외.
	2017	작가 14명, 큐레이터 2명	1400만원 내외.
2018	작가 14명, 큐레이터 2명	1500만원 내외.	

### 3. 요약

#### □ 지원 대상

-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이 신진 작가기획자비평가를 아직 자신의 예술적 작업

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로서 입문하는 과정에서 창작 역량을 증진하고 자신의 관심사와 작업 방향을 탐색하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했다. 신진이나 청년 작가기획자비평가를 지원 대상으로 할 때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만 35세~39세 이하로 나이제한을 두었고 최근 2~5년 이내에 1~2회 전시 경력이 있을 것을 요구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작가의 개인전을 지양하고 기획자를 중심으로 기획 전시를 지원하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예술창작아카데미’는 단계별 창작 과정에서 예술 활동의 질을 상승시키고자 했고 ‘청년예술가지원’은 아직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은 청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지원의 폭을 한정했다.
-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인천 연고 문화예술인(단체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트랙이 다수였고 ‘신진 예술가 발굴-바로 그 지원’은 연고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은 뒤 최종 발표를 인천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자로 한정했다.

#### □ 지원 규모와 내용

- 전시 1회 개최를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아카데미’가 가장 큰 규모<sup>3)</sup>였으며, 인천문화재단의 ‘신진 예술가 발굴-바로 그 지원’이 가장 작은 규모<sup>4)</sup>였다.
- 창작 준비나 전시 사전 연구를 지원하는 트랙은 대부분 500만 원 이하의 규모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전시 지원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를 지원했다.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작가 공모-예비전속작가제 지원’은 전속 작가에게 창작 활동비로 월 150만 원을, 단체에게 프로모션을 위한 홍보비로 250만 원을 지급한다. 전시 개최와 무관한 활동성 비용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이 전시 개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지원하며 창작 준비 또는 전시 사전 연구를 지원하는 트랙은 리서치, 인터뷰, 세미나,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했다.

#### □ 심사 방식

- 2019년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1차 서류 심의, 2차 PT 및 인터뷰 심의로 구성

3) 작가 최대 18백만 원, 큐레이터 최대 25백만 원.

4) 최대 100만 원.

되었는데, 2020년 프로그램에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청년예술가지원’,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지원’은 인터뷰 심의를 없애고 서류 심의만으로 심사를 간소화했다. 반면 (전시의 직접 경비 지원이 아닌 과정 지원이 특징으로 두드러지는) ‘예술창작아카데미’는 여전히 서류 심의와 인터뷰 심의 두 단계를 수행해 지원자를 선발한다.

#### □ 비평가 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청년예술가지원-비평발간지원’은 원고료와 작가 대담 등 비평 활동비와 출판 비용을 지원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지원’의 경우 원고의 분량 대비 사례비<sup>5)</sup>가 미리 규정되어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기반지원-비평지원’은 비평가 풀을 구성하고 당해년도 서울문화재단 ‘창작활동지원’ 선정 전시와 매칭해 사례비를 지원한다.

#### □ 공간 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창작산실-비영리전시공간’은 공간 유지비나 참여인력 인건비 등 일반수용비, 임차료(장비, 물품),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원한다. 성장형과 자립형의 두 트랙이 있기 때문에 선정 공간들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설정한 대안의 방향성을 추정할 수 있다.
-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기반지원’ 중 ‘작업실·연습실 지원’은 창작 활동을 위해 임대 중인 공간에 대해 임차료를 직접 지원한다. 서울문화재단 ‘예술공간지원’은 2019년 공간의 임차료를 직접 지원했으나, 2020년에는 아직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다.

#### □ 그 외 시사점

- 지역문화재단인 인천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은 ‘예술표현활동’과 ‘신진 예술가 발굴(바로 그 지원)’, ‘인천 예술인 생애 주기 맞춤형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술한 여타 기관과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나 인천이라는 지역성을 고민하며, 출신 예술가들을 적극 후원하는 양상을 보인다.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모든 사업이 행정 심의, 전문가 서류 심의, 전문가 인터뷰의 3단계를 거친다.
- 또 다른 지역문화재단 기금인 경기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사업의

5) 원고지 1매당 2만 원, 회당 최대 200만 원.

기획과 분류 측면에서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려웠다. 다만 '경기작가 개인전 지원'은 지난해 선정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다음 해 후보로 삼는다는 점에서 여타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었다.

## 제5장

###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 제1절 연구 내용 정리

1. 인사미술공간의 핵심 정체성
2. 인사미술공간의 당면 과제

#### 제2절 발전 방안 제언

1. 제언과 실행 전략

## 제1절 연구 내용 정리

## 1. 인사미술공간의 핵심 정체성

## □ 유일무이의 국공립-대안공간

- 인사미술공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2000년 개관했다. 인미공은 국공립 기관으로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 투입”, “장기적 비전 제시”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대안공간으로서 “즉각적 소통”과 “유연한 기획·운영”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모두 갖추고, “기존 미술관 운영체제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현장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수용해 제도권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담당”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공적 제도 내의 대안적 기능을 담당하고 선도해 온 독특한 위치”를 점유해 왔다.
- 이러한 특징은 인사미술공간이 구현해 온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극대화되었다. 요컨대 인사미술공간의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은 “개별 대안공간이 기획하거나 실현할 수 없는 맞춤형 지원과 육성”을 “큐레이팅, 크리틱, 홍보, 멘토링 등이 조합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전시 생산의 전 단계를 지원하고 작가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다.
- 인사미술공간이 설립 초기 시행한 ‘신진 작가 수첩’은 이후 AYAF와 기타 제도권 작가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한 모태가 되었다. 또 인사미술공간이 주관한 신진 작가기획자 지원 프로그램은 당사자들에게 “작업 내외의 측면에서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언어를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 □ “제도의 안티-제도” 그리고 “대안공간의 대안”

- 인사미술공간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제도를 가장 잘 아는 주관자가 가장 제도답지 않은 방식으로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스스로의 취약성을 극복”하려 시도한 “제도의 윤리적 노력”이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인사미술공간의 활동은 예술·사회적 실천으로서 유의미한 명분을 획득하며 미술 현장에서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 인사미술공간은 2000년대 중흥기를 맞이한 대안공간들을 제도 내에서 변별하고

네트워킹함으로써 ‘대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촉진했다. 실제로 인사미술공간 설립을 기점으로 관련 담론 생성과 정책 지원이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된다.

- 인사미술공간은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전략으로 공간 주요 사업에 해당하는 전시, 그리고 그 외 프로그램들(워크숍, 렉처, 라운드 테이블, 포럼 등) 사이의 긴밀한 연결성을 구축했다. 전시와 포럼 형식을 적절히 활용한 <동두천 프로젝트>(2006~2009), 이미지 아카이브와 토크, 협업 기반의 전시를 주요 포맷으로 한 <오후 다섯 시>(2006~2007) 등이 설립 초기 주목받았던 인사미술공간의 시도다.

#### □ 젊은 미술을 위한 실험실

- 인사미술공간은 동시대 미술계에 신진 미술인들을 연착륙시키는 “등용문”이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 이벤트를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거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창작이 발화되었다.
- 상대적으로 비주류 매체로 간주되어 온 비디오/영상을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주류 미술에 신선한 긴장을 불어 넣었고,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에서 때론 날 선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인사미술공간과 함께 성장한 신진 작가들은 오늘날 한국 미술의 중요한 플레이어들로 주목받고 있다.
- 개관 이후 총 197회에 이르는 전시를 개최하며 한국의 지역적 특수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비디오-미디어-이미지 아카이브 활동, 사회적 문제를 예술의 전면에서 다루는 라운드 테이블, 공간이 위치한 원서동의 로컬리티와 미시사를 탐색하는 리서치 등을 진행했다.

## 2. 인사미술공간의 당면 과제

#### □ 인사미술공간의 위상 변화

-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신진 미술인들에게 인사미술공간은 “진입 장벽이 높고 다가가기 힘든 곳”으로 인식된다. 기존에 인미공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미술인들의 인터뷰에서는 (최근의 인사미술공간이) 시각적 결과물을 보는 데 집중하는 “결과중심 공간으로, 아르코 예술창작아카데미를 위한 발표장”이라고 조사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 특히 1990년 이후 출생한 미술인들이 인사미술공간에 대해 별다른 상징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은 과거 미술계에서 젊고 감각적인 ‘브랜드’로 통용돼 온 인사미술공간에 숙고가 필요한 지점이다.

#### □ 변별성 부재

- 인사미술공간에서는 한 명의 작가를 초대하거나 지원하는 개인전이 별도의 주제를 가진 기획전 대비 약 2배 이상 개최되었다. 워크숍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된 후, 특히 최근 3년간 개인전과 기획전의 비율은 2.6대1로 그 격차가 심화되었다. 개인전을 통해 새로운 작가를 소개하는 것은 인미공의 주요 미션 중 하나지만, 그것이 ‘새롭다’는 측면에서 명확히 변별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획전の場合에도 대외적으로 선명한 의제를 제시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었다.<sup>6)</sup>
- 지역문화재단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양과 질 양면에서 크게 발전하였고, 최근 동종의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변별점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전시 1회에 소요되는 500만~1,000만 원 정도의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증가해 결과중심의 개인전이 다소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사미술공간에 새로운 ‘성장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 □ 역사와 정보의 부재

- 인사미술공간 홈페이지가 운영을 중단하고 그간의 자료들 역시 제한적으로 아카이브에 통합·이관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자들이 관련 역사를 연구하고 담론을 생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뿐 아니라, 인미공이 통과해 온 시간을 현재의 미술계에 공유하고 이를 공간의 상징성과 경쟁력으로 재창출할 기회를 차단한다.
- 예컨대 인사미술공간은 2006년부터 “비디오 및 디지털 영상 매체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해 《스크리닝: 비주얼 사운드》(2007), 《시네마틱, 무빙 이미지의 확

6) 인사미술공간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개최한 전시 총 197회 중 명확한 기획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전시는 약 15회 정도다.

장: 아티스트 필름&비디오 쇼케이스 2008»(2008), «서울 문화의 밤: 제로원 아카이브 스크리닝+인사미술공간 스크리닝»(2009), «비디오+캐스트 작가 13명»(2011)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유관 사업은 모두 중단되었고, 이처럼 다양한 비물질 작업의 생산과 교류를 촉진했음에도 대부분의 결과물은 일부 프로그램에 국한된 인쇄물로 남아 있다.

#### □ 전담인력과 예산의 부족

- 인사미술공간이 당면한 과제들은 조직 체계나 고질적인 인력·예산 부족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개관 당시 6명의 기획위원과 상시 공간 상주가 가능한 2~3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었던 것과 달리, 현재 평균 1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인사미술공간의 인력 문제는 FGI 조사에서 “인사미술공간이 유의미한 화두를 미술계에 제시하고 담론을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거듭 지목되었다.
- 기타 제도권 프로그램, 특히 지역문화재단 재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미술공간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감소해 왔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사미술공간의 운영에 관해 명확히 표명되어야 할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몇 번의 조직 개편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아르코미술관과 함께 미술관운영부에 속하게 된 과정에서, 잦은 프로그램 변화, 지원 규모 축소 등 적잖은 손실이 인사미술공간에 누적되었다.

## 제2절 구체적 발전 방안

### 1. 제언과 실행전략

#### □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 인사미술공간은 20년의 역사를 가진 공간으로, 길지 않은 한국 동시대 미술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중추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인사미술공간의 위상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이 변화가 근본적인 공간 정체성의 약화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
- 새로운 세대의 신진 미술인들에게 인사미술공간은 “80년대생 선배 작가들”의 전시를 “보수적으로” 답습하는 곳, “안전한 전시”를 추구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앞선 세대와의 차별화를 통해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신세대들은 인사미술공간을 의식적으로 기피해야 할 곳으로 단정하기도 한다. 한편, 과거 인미공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미술인들에게 현재의 인사미술공간은 “결과중심 공간으로 아르고 예술창작아카데미를 위한 발표장”, 또는 “몇 년간 자체 기획이 침체”돼 있는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대관 공간”처럼 이미지화되었다.
- 이는 제도-비제도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인사미술공간이 결과적으로 제도에 지나치게 가까운 분면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운영체계 독립:** 인사미술공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독립 기관으로 개관한 이래, 몇 번의 개편을 통해 본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왔다. 아르고 산하에서 여러 기관과 프로젝트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나, 인사미술공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독립성 보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힘의 불균형은 긍정적인 시너지보다 인미공의 위성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인사미술공간은 제도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브랜드로 유지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온 곳이다. 또 이런 특성은 선술하였듯 인미공의 핵심 정체성으로 간주돼 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종력, 나아가 타 부서 연계사업이 인사미술공간의 독자성을 희석하는 상황은 인미공의 정체성을 급격히 제도 쪽으로 치우치게 만들면서 공간의 비전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전문 상주 인력 충원: 인사미술공간만의 특수한 미션을 전담해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갖추는 일은 모든 실행안 중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제언이다. 또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정당한 예산과 권한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고 장기적 비전의 토대를 닦을 수 있는 미술 현장의 신뢰를 회복한다.
- 시각 아이덴티티 리뉴얼: 인사미술공간의 브랜드 효과 제고를 위해 로고, 사이니지, 홈페이지와 템플릿 등을 리뉴얼한다. 이러한 실행안은 20주년을 맞아해 공간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또 그러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시각 아이덴티티 리뉴얼은 후술할 ‘신규 프로그램 도입’ 및 ‘인미공 아카이브 개설’과 연계해 선택적으로 혹은 다양한 레벨로 시도될 수 있다.

#### □ 신규 프로그램 도입

- 인사미술공간은 신진 미술인들의 유의미한 등용문이면서 동시대 미술계에 활기와 자극을 공급하는 화수분이 되어 왔다. 이는 인사미술공간의 핵심 정체성, 즉 “안티-제도”의 역할, “대안의 대안”이라는 역할과 관계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20년간 크고 작은 예술·사회적 변화들이 누적되며 인미공의 ‘거울’이라 할 만한 제도적·대안적 테제들이 모두 달라졌다. 이러한 점은 자연스럽게 인사미술공간만의 고유한 특징과 변별성을 약화시킨다.
- 최근에는 미술가 개인에 의해 운영 및 관리되는 소규모 전시공간이 증가하면서 그를 매개로 벌어지는 휘발적이고 가변적인 미술 이벤트 기획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전시 공간의 다원화 현상과 함께, 지난 몇 년간 지역문화재단 재원을 통해 확대된 ‘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공간지원’ 등은 작가 개인 중심의, 작고 빠른 전시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상을 가속시키는 중이다.
- 또 순수미술 자원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 정책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신진 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 문제는 청년 문제의 일환으로 소구되는 경향을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이 큰 틀에서 상호작용하며 ‘청년정책’은 서로를 참조하며 평균화·평준화된다. 이러한 일률적인 정책 흐름에 대해 새로운 ‘안티-제도’로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인사미술공간의 ‘대안’이란 제도권 미술계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갱신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 ‘창작공간’이 될 수 있는 플랫폼: 젊은 작가 또는 예비작가들에게는 자신의 작업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것은 공간에 관한 필요이면서 동시에 환경, 분위기, 입지, 관계, 기술에 관한 복합적인 필요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신진 작가들이 대학원에 진학하지만 그것은 제한적인 선택지에 불과하다. 신진 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은 기존 지원 제도가 제공하는 전시 공간이나 레지던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플랫폼으로서의 ‘창작공간’은 작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시간을 보내게 허용함으로써 작품을 창조하는 실질적인 거점이 된다. 또 이를 위해 다양한 창작자, 연구자, 전문가들을 모으고 그 가운데 발생하는 영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작가 발굴’이 아닌 ‘작가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작가를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전에 필요한 예산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현재 가장 일반화된 작가 지원 제도의 틀이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비슷하게 평준화된 일회성 지원 제도가 서로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증가하며, 500만~1,000만 내외의 예산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개인전이 창작과 발표의 거의 모든 장면들을 대체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신진 작가들은 제도의 정량적 성과를 증명하는 수처로 동원되며 또 다른 방식의 소모적 경쟁에 내몰린다. 궁극적으로 작가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담론 생산, 비평의 확장을 고민하고 함께 ‘느린 시간’을 보내며, 궁극적으로 그 성과에 대해 작가와 공동의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지원의 윤리가 요구된다.
- 물리 공간의 활용성 증대: 미술계의 변화 속에서 가변적인 임대 시설, 태생적으로 미술을 위해 지어지지 않은 건축 공간은, 오늘날 새로운 미술의 생산-소비-유통 방식에 관한 실험과 만나 그 형식을 변주하는 또 다른 제도비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대안공간과 신생공간을 잇는 모종의 흐름을 통해 강화돼 온 한국 동시대 미술의 한 가지 특징이기도 하다. 인사미술공간은 미술관과 대안공간-신생공간 사이에 위치한 물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비슷한 토대 위에서 성장한 신진 작가들이 자신의 고유한 형식과 스케일을 훼손하지 않고 공간 활용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인사미술공간이 다른 재단이나 미술관 대비 가진 강력한 장점으로, (장소특정

성에서 탈피한) “조건특정성과 유동성”을 매개로 동시대 미술과 연결되는 통로를 직접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선행하는 조건으로 유지 및 보수의 필요성, 적합한 경험치를 갖춘 상주 인력 확보가 제시되었다.

- 지원 및 심사의 간소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은 상대적으로 지원과 심사의 문턱이 높고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원시의 난이도를 낮추고 시간 소모를 최소화하며 지원자에게 자율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심사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또 실질적인 프로그램 담당자의 영향력을 심사 과정에서 증대시키는 것이 신규 플랫폼/프로그램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 □ 커뮤니케이션 강화

- 현장에서 ‘인미공 워크숍’ 이후 인사미술공간의 활동이 중지되었다거나 정체되었다고 느끼는 것에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일부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2016년 이후 인사미술공간의 활동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1990년대 이후 출생 미술인들),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인사미술공간과 함께 일했던 미술인들) 측면이 있으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더라도 파편적으로 조각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 인사미술공간에 대해 비교적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직접 유관 웹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고, 복잡한 접속 경로, 느린 업데이트, 불충분한 정보량, 커뮤니케이션 이슈를 전담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정확한 콘택트 포인트가 부재하는 점을 문제 요소로 지적했다. 인사미술공간에 대한 정보 접속 경로 중 인스타그램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SNS 계정의 활동은 거의 체감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았다.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인사미술공간의 현황 및 주요 쟁점들에 대해 내·외부의 인식을 유리시키며 장기적인 운영 방향 설정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 지난 사업들에 관한 정보나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역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인사미술공간은 영상, 퍼포먼스 등 보다 감각적이고 실험적인 비물질 작업을 전시하고 유통하는 데 강점과 노하우가 있었으나, 현재 자체 아카이빙 사업이 중단되면서 결과적으로 내부 사업 방향과 그 보존 방식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커뮤니케이션 다원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브이로그 등 빠르고 즉각적인 소통을 위해 다양한 매체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주요 전시 이벤트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확산할 때 뿐 아니라, 평소 인미공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신진 미술인들과의 유대를 형성하는 유의미한 제스처가 된다.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전담자를 지정하는 여러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나아가 단순히 현황을 적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1~2개월, 1~2년의 중장기 계획을 미리 제시해 인미공이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계획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관한 현장의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다.
- 인미공 아카이브 도입: 인사미술공간의 주력 콘텐츠로 간주돼 온 비물질 예술 콘텐츠를 비롯해 신규 프로그램의 다양한 결과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거나 퍼블리케이션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다. 인미공 아카이브는 각종 프로그램의 장기 보존과 열람에 활용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이 하나의 중요한 예술 프로젝트로 성립하거나 거대한 협력-창작의 산실로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2017년 갤러리 팩토리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자체 아카이브를 웹사이트에 장착했는데, 이런 사례는 충분히 연구될 가치가 있다. 다수의 역량있는 기획자, 웹디자이너, 프로그래머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시대 서울의 환경에서 인미공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예술과 기술을 의미있게 결합하는 또 다른 선도적 실험이 될 것이다.
- 현 원서동 부지의 중장기 계약: 임대계약을 통해 유지되는 현 원서동 부지의 특성상, 계약에 즈음한 시기마다 공간 이전에 관한 불필요한 불안과 소문이 확산되는 일이 반복된다. 이는 작가와 관객들에게 공간에 대한 심리적 유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중장기적 계약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1. 정소라(2005), 「국내 대안 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부 조형예술학 석사학위논문.
2. 채주희(2007), 「한국 대안 공간의 특성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신현진(2015), 「사회적 체계 이론의 맥락에서 본 대안 공간과 예술의 사회화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안민혜(2015),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 신생 공간」, 『Visual』.
5. 신혜영(2016), 「스스로 '움직이는' 미술가들: 자립적 미술 신생공간 주체들의 생활 경험과 예술 실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6. 이주연(2017), 「대안적 예술 공간과 대안성의 문화정치: 국내 대안 공간과 신생 공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백송민(2019), 「한국 대안 공간의 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장인태(2006), 「기초 예술 육성을 위한 문예진흥기금의 효율적 지원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최범식(2012), 「문화예술인 지원 정책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시각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정지연(2017), 「1990년대 이후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별 사례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안나현(2019), 「국공립미술관의 신진 작가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7), 『한국의 대안공간 실태연구』 (사) 문화사회연구소.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9), 「비영리 전시공간 다시보기: 인사미술공간 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 조사 및 현황 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붙임 1] 인사미술공간 전시 사업

- 2000년 전시 총 14회 개최, 총 관객 수 정리된 자료 없음.
  - 강영민 외 5인 개관전 «또 다른 공간» 05.26~06.18
  - 정혜승 기획초대전 «Mafi' organization» 06.21~07.02
  - 레이몬드 한 기획초대전 «아메리사지 (Amerrissage)» 07.05~07.23
  - 이원희 기획초대전 «생선이 있는 부엌» 07.26~08.06
  - 홍경택 기획초대전 «신전» 08.09~08.20
  - 남이 외 10인 기획초대전 «미술관 습격» 08.23~09.03
  - 이현진 기획초대전 «사이에서 맴돌다» 09.06~09.17
  - 강성원 기획초대전 «강성원 개인전» 09.20~10.01
  - 임민욱, 프레드릭 미송 기획초대전 «주관적 이웃집» 10.04~10.15
  - 고승욱 기획, 걸레밴드 외 9인 기획초대전 «옥상걸 지하맨» 10.18~10.29
  - 정정엽 기획초대전 «붓 물» 11.01~11.12
  - 김기철 기획초대전 «소리조각-해인» 11.15~11.26
  - 남택운 기획초대전 «사진의 음모» 11.29~12.10
  - 300여 명 기획초대전 «릴레이 릴레이» 12.13~12.24 (드로잉, 메일아트전)
- 2001년 전시 총 24회 개최, 총 관객 수 정리된 자료 없음.
  - 홍성민 기획초대전 «홍성민 작품전» 01.04~01.14
  - 류용문 기획초대전 «그림의 해부» 01.17~01.28
  - 박찬경, 장영혜, 호다즈 기획주제전 «선샤인-남북을 비추는 세 가지 시선» 02.05~02.24
  - 장지희 기획초대전 «비 상 구» 02.28~03.11
  - 류준화 기획초대전 «그녀의 침묵» 03.14~03.25
  - 강수미 기획, 김미형 외 4인 기획초대전 «타인 없는 세상» 03.28~04.08

- 이한수 기획초대전 «천상에서 온 일기예보» 04.11~04.22
  - 류지선 기획초대전 «사이비 동물원» 04.25~05.06
  - 이인청 기획초대전 «일하는 사람들» 05.09~05.20
  - 배성빈 기획초대전 «이색적 공간의 내력(신림7동과 봉천3동)» 05.23~06.03
  - 조습 기획초대전 «명랑교 첫 부흥회 “난 명랑을 보았네”» 06.06~06.17
  - 권오상 기획초대전 «데오도란트 타입» 06.20~07.01
  - 박경주 기획초대전 «워킹 홀리데이» 07.04~07.15
  - 김유선 기획초대전 «오래된 바다» 07.18~07.29
  - 고상우 기획초대전 «꽃을 든 남자» 08.01~08.12
  - 전승일 기획, 곽은숙, 손혜민 기획초대전 «독립영상전: 디지털 드릴» 08.15~08.26
  - 유혜진 기획초대전 «반 사» 08.29~09.09
  - 손영규 기획초대전 «고 백 록» 09.12~09.23
  - 한진수 기획초대전 «공 중» 09.26~10.07
  - 김상길 기획초대전 «스마트 프로그램» 10.10~10.21
  - 권정준 기획초대전 «돌러보기 Go-around» 10.24~11.04
  - 기획주제전 «한/호 큐레이터 교류전 - 증인들: 호주 사진 미디어 작가» 11.07~12.02
  - 김승영 기획초대전 «P.S. 1 귀국보고전» 12.06~12.16
  - IENES 기획초대전 «가설의 서커스 III (Hypothetic Circus III)» 12.19~12.30
- 2002년 전시 총 10회 개최, 총 관객 수 정리된 자료 없음.
- 박주연 개인전 «돌림노래» 01.02~01.13
  - 오유영 개인전 «오유영 개인전» 01.16~01.27
  - 박원주, 이윤태 단체전 «장님의 코끼리, 코끼리의 진실» 01.30~02.10
  - 고정아 외 36인 단체전 «The Show» 02.15~02.24

- 문형민 개인전 «9 Objects» 02.27~03.10
  - 김성희 외 3인 단체전 «여기-있음» 03.13~03.24
  - 강은수 개인전 «알 수 없는 영역» 03.27~04.07
  - 장윤성 개인전 «경계경보» 04.10~04.21
  - 김한용, 정병태 단체전 «한국의 사진과 리얼리즘» 11.18~12.02
  - 김나영 개인전 «CAFE» 12.11~12.22
- 2003년 전시 총 5회 개최, 총 관객 수 정리된 자료 없음.
- 심철웅 외 6인 단체전 «트루먼이 묵었던 남대문 2층 객실» 11.20~11.30
  - 양아치 개인전 «전자 정부» 12.03~12.14
  - 피터 귀도-바그너 카롤린 외 3인 단체전 «데프 5» 12.17~12.28
  - 서은애 개인전 «웃기는 자화상» 12.19~12.31
  - 이정승원 개인전 «정신분열» 12.31~2004.01.11
- 2004년 전시 총 17회 개최, 총 관객 수 정리된 자료 없음.
- 황혜선 개인전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대한다.» 01.16~01.28
  - 박상희 개인전 «간판은 아트다» 01.28~02.08
  - 정연두 개인전 «정연두 개인전» 01.30~02.11
  - 박정혁 개인전 «도립» 02.11~02.22
  - 노재운 외 7명 단체전 «사년 2000~2004 '시간'» 02.25~03.14
  - 김신일 개인전 «김신일 개인전» 03.17~04.04
  - 이가경 개인전 «이가경 개인전» 04.07~04.25
  - 이부록 개인전 «전시전시» 04.07~04.25
  - 조지은 개인전 «Depth Indicator» 05.20~06.06
  - 노재운 개인전 «스킨 오브 사우스 코리아» 06.10~06.27
  - 정우영 개인전 «빛들의 정원» 06.28~07.18

- 김지현 개인전 «I Am Ready!» 07.21~08.08
  - 강영민 개인전 «조는 하트» 08.11~08.29
  - 최형섭 개인전 «슬라이딩 스페이스» 09.03~09.19
  - 함양아 개인전 «Dream... In Life» 09.23~10.10
  - 최소연 개인전 «접는 미술관» 10.20~10.31
  - 송상희 개인전 «푸른 희망» 11.05~11.21
- 2005년 전시 총 19회 개최, 총 관객 수 정리된 자료 없음.
- 천민정 개인전 «현기증/환치» 01.19~02.26
  - 김지예 개인전 «C와 J의 기억의 방» 02.16~03.06
  - 박윤영 개인전 «픽톤의 호수» 03.10~03.27
  - 김병규 개인전 «옥현이네 집» 03.30~04.17
  - 김미형 개인전 «윙윙» 04.20~05.08
  - 옥정호 개인전 «옥정호 개인전» 05.13~05.29
  - 허윤희 개인전 «날들의 피부» 06.03~06.19
  - 박준범 개인전 «박준범 개인전» 06.22~07.10
  - 김보민 외 9인 단체전 «작가성장프로젝트» 07.06~10.24
  - 김수범 개인전 «Gallery + Diary» 07.11~08.07
  - 유영필 개인전 «안녕하세요? 새침한 와이피입니다.» 07.16~07.31
  - 강석호 개인전 «복장» 08.03~08.21
  - 기획전 «유로스크린21 in Korea» 08.10~08.27
  - 기획전 «Good Form» 08.24~09.04
  - 김보민 외 9명 단체전 «인미공 “열전”» 09.07~09.16
  - 김세진 개인전 «이상사회» 09.23~10.09
  - 조용준 개인전 «일상과 순환» 10.12~10.30
  - 구영경 외 11인 단체전 «이동의 정체성, 정체성의 이동» 10.27~10.30

- 배종현 개인전 «변방으로의 욕망-잡초 프로젝트» 11.02~11.20
- 2006년 전시 총 11회 개최, 총 관객 수 정리된 자료 없음.
  - 임택 개인전 «옮겨진 산수-유람기» 01.11~01.27
  - 김기수 개인전 «대단지» 02.08~02.26
  - 김태균 개인전 «역순회화» 04.19~05.14
  - 프리드리히 메세드 외 8인 단체전 «선택의 조건\_Fram Builders» 05.24~07.02
  - 김미나 외 9인 단체전 «인미공 “열전”» 07.11~08.13
  - 김혜나 개인전 «김혜나 개인전» 08.18~09.17 (뉴스타트 2)
  - 김영은 개인전 «김영은 개인전: 청취자들» 09.22~10.15
  - 조은지 개인전 «행동하는 시» 10.18~10.29
  - 김보민 외 3명 단체전 «원서동 구적지도 만들기/공공미술 프로젝트» 10.18~10.29
  - 정원영 진행 단체전 «핑퐁: 동서남북» 10.28~11.02
  - 이수영 개인전 «기록-증명» 12.20~2007.01.21.
- 2007년 전시 총 7회 개최, 총 관객 수 정리된 자료 없음.
  - 단체전 윤사비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 04.18~05.13
  - 최수정 개인전 «무지개» 06.01~07.01
  - 권경환 외 9인 단체전 «2007 인미공 ‘열’전» 07.18~08.26
  - 다니엘 플럼 외 21인 단체전 «스크리닝: 비주얼 사운드» 08.28~09.07
  - 유다원 외 10인 단체전 «고양이 요람» 08.31~09.11
  - 배영환 외 9인 단체전-국제교류전 «Activating Korea: Tides of collective action» 09.15~11.25
  - 고승욱 외 3인 단체전 «동두천 프로젝트: A Walk to Remember, A Walk to Envision» 12.01~2008.02.24
- 2008년 전시 총 6회 개최, 총 관객 수 정리된 자료 없음.

- 양아치 개인전 «Middle Core: Yangachi Episode I» 01.09~02.03
  - 박주연 개인전 «여름빛» 03.05~03.30
  - 고승욱 외 3인 단체전 «동두천: 기억을 위한 보행, 상상을 위한 보행» 05.08~07.06
  - 에스라 에르센 외 6인 단체전 «숨김 없는 이야기(Candid Stories)» 05.21~06.13
  - 단체전 «시네마틱, 무빙 이미지의 확장: 아티스트 필름&비디오 쇼케이스 2008» 09.17~10.12
  - 윤 복 개인전 «피클 속 핸드백 두 개» 11.22~2009.02.08
- 2009년 전시 총 10회 개최, 총 관객 수 정리된 자료 없음.
- 권소정 개인전 «권소정 개인전» 08.05~08.22
  - 강승희 외 9인 단체전 «서울 문화의 밤: 제로원 아카이브 스크리닝+인사미술공간 스크리닝» 08.29
  - 강승희 개인전 «Different Sames» 08.27~09.06
  - 아드리아 줄리아 개인전 «집 만한 곳이 없다(No Place Like Home)» 09.11~09.27
  - 신지선 개인전 «원서동» 10.01~10.20
  - 단체전 «NOW WHAT-현대미술 그리고 민주주의» 10.24~11.08
  - 단체전 «해외 기관 초청 한국 현대미술 5인전» 10.15~01.24
  - 남지 개인전 «Visibility» 11.17~12.01
  - 박성연 개인전 «still lives; small voices» 12.05~12.20
  - 최원준 개인전 «타운하우스» 12.26~01.12
- 2010년 전시 총 11회 개최, 총 관객 수 5,463명
- 정강 개인전 «face, face, face!» 01.16~02.02
  - 유은주 개인전 «위대한 싸움(Such Great Battles)» 02.06~02.25
  - 천영미 개인전 «그대 별을 보았는가» 04.08~04.29 (관객 수 427명)
  - 백정기 개인전 «단비\_SweetRain» 05.07~05.23 (관객 수 612명)

- 단체전 «디자인 올림픽에는 금메달이 없다» 06.02~06.24 (관객 수 845명)
  - 김시내 개인전 «beyond XYZ: spectacle variation» 07.02~07.22 (관객 수 482명)
  - 권용주 개인전 «부표-buoylight» 08.03~08.13 (관객 수 560명)
  - 이영민 개인전 «앵그리 씨어터: to be or not to be» 08.31~09.16 (관객 수 553명)
  - 이주은 개인전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 09.28~10.14
  - 전소정 개인전 «단식 광대 이야기 (심경의 변화)» 11.19~12.09 (관객 수 671명)
  - 태이 개인전 «남해금산» 12.12~11.01.08 (관객 수 303명)
- 2011년 전시 총 9회 개최, 총 관객 수 9,855명
- 최진아 개인전 «문학을 위하여» 03.23~04.16 (관객 수 672명)
  - 황연주 개인전 «기억하는 사물들» 04.22~05.12 (관객 수 639명)
  - 김도희 개인전 «죽은 나무에 물주기» 05.2~06.08 (관객 수 590명)
  - 양희아 개인전 «11월의 주황 지평선» 06.17~07.07 (관객 수 601명)
  - 설기호 개인전 «언어의 빛, 빛의 소리, 소리의 색» 08.12~08.28 (관객 수 1,681명)
  - 조경란 개인전 «첩경» 09.14~09.30 (관객 수 553명)
  -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기획전 «비디오+캐스트 작가 13명» 10.05~10.30 (관객 수 987명)
  - 정문경 개인전 «known» 11.09~11.27 (관객 수 3,113명)
  - 신제현 개인전 «ARIN PROJECT» 12.16~12.29 (관객 수 862명)
- 2012년 전시 총 9회 개최, 총 관객 수 정리된 자료 없음.
- 단체전-신진 작가, 독립 큐레이터 전문가 성장 프로그램 결과 보고전 «1시 방향의 저글링 때 (Operation: Can't Wait Any Longer)» 02.08~02.25
  - 단체전 «제27회 한선정 초대전」 \_ 책상 위의 한 선정은, 결국» 03.14~03.31
  - 단체전 «예술가들의 연구실을 개방하다» 04.26~05.13

- 단체전-전시 공모 «년제로섬 사회» 05.22~06.12
  - 서민정 개인전-전시 공모 «Fired White» 06.29~07.13
  - 윤주희 개인전-전시 공모 «젊음, 뒤돌아보는 용기» 08.21~09.06
  - 유화수 개인전-전시 공모 «It's difficult for me to use» 09.12~09.29
  - 박광수 개인전-전시 공모 «Man on pillow» 10.16~11.02
  - 현창민 개인전-전시 공모 «Good Mourning Sun» 11.28~12.07
- 2013년 전시 총 7회 개최, 총 관객 수 정리된 자료 없음.
- 단체전-아르코 신진 기획자 워크숍 결과 보고전 «()를 위한 무대» 02.15~03.16
  - 허수영 개인전-AYAF «Recent Paintings» 05.10~05.31
  - 정지현 개인전-AYAF «Bird Eat Bird» 06.12~07.13
  - 단체전 «제2회 비디오 릴레이 탄산» 07.23~08.09
  - 차혜림 개인전-AYAF «밤의 무기들» 08.23~09.14
  - 김용관 개인전-AYAF «표본공간, 희망에 의한 기관의 변이» 09.27~10.20
  - 백현주 개인전-AYAF «친절한 여자씨» 10.31~12.01
- 2014년 전시 총 7회 개최, 총 관객 수 정리된 자료 없음.
- 단체전 «미쓰-플레이» 01.24~02.28
  - 배윤환 개인전-AYAF «WAS IT A CAT I SAW?» 05.09~06.05
  - 이윤이 개인전-AYAF «두 번 반 매어진» 06.20~07.27
  - 단체전 «제3회 비디오 릴레이 탄산» 08.08~08.29
  - 이미래 개인전-AYAF «낭만쟁취» 08.14~09.14
  - 윤향로 개인전-AYAF «Blasted (Land) scape» 10.01~10.31
  - 강정석 개인전-AYAF «베이포-X와 흙비디오» 11.14~12.14
- 2015년 전시 총 6회 개최, 총 관객 수 정리된 자료 없음.
- 단체전-큐레이터 워크숍 성과보고전 «아무도 모른다(Nothing we could know)» 02.06~03.08

- 단체전-큐레이터 워크숍 성과보고전 «막후극» 03.27~05.01
  - 이세옥 개인전-AYAF «Open Reading Frame» 05.15~06.14
  - 김실비 개인전-AYAF «엇갈린 신(들)» 06.26~07.26
  - 한정우 개인전-AYAF «누워 있는 세계» 09.11~10.18
  - 김정현 기획전-AYAF «연말연시» 12.18~16.01.17
- 2016년 전시 총 7회 개최, 총 관객 수 7,003명
- 전채강 개인전-AYAF «밤의 아리아» 02.19~03.19 (관객 수 925명)
  - 단체전-아르코 신진작가 워크숍 결과보고전, 윤율리 기획, «실키 네이비 스킨» 04.15~05.14 (관객 수 1,270명)
  - 단체전-아르코 신진작가 워크숍 결과보고전 «빨의 자리» 06.02~07.09 (관객 수 1,687명)
  - 단체전-아르코 신진작가 워크숍 결과보고전 «Cosmos Party» 07.22~09.03 (관객 수 1,465명)
  - 미술주간 «막간» 10.14~10.22 (관객 수 385명)
  - 단체전-아카데미 «반쯤 열린 방» 11.11~12.10 (관객 수 920명)
  - 단체전-아카데미 «이삿날» 12.23~01.21 (관객 수 1,276명)
- 2017년 전시 총 5회 개최, 총 관객 수 7,424명
- 신동혁 기획전-아카데미 «착화점» 03.17~05.05 (관객 수 1,965명)
  - 송지현 기획전-아카데미 «상영중» 05.26~07.15 (관객 수 1,894명)
  - 미술주간 «막간» 10.13~10.21 (관객 수 522명)
  - 이의성 개인전-아카데미 «드로잉 실험실» 11.09~12.09 (관객 수 1,564명)
  - 강호연 개인전-아카데미 «Planet 72.82㎡» 12.22~01.27 (관객 수 1,479명)
- 2018년 전시 총 7회 개최, 총 관객 수 8,421명
- 이은영 개인전-아카데미 «빛으로 세운 목소리» 02.23~03.24 (관객 수 1,011명)
  - 이한범 기획전-아카데미 «픽션-틀: 아티스트 퍼블리싱과 능동적 아카이브» 04.06~05.05 (관객 수 1,238명)

- 정시우 기획전-아카데미 «폴리곤 플래시 OBT» 05.18~06.16 (관객 수 1,283명)
  - 전형산 개인전-아카데미 «전형산 개인전» 06.29~07.28 (관객 수 1,215명)
  - 유영진 개인전-아카데미 «캠브리아기 대폭발» 08.17~09.15 (관객 수 1,293명)
  - 고재욱 개인전-아카데미 «크로스 플랫폼» 10.17~11.14 (관객 수 1,189명)
  - 박경진 개인전-아카데미 «현장(Site)» 11.30~12.29 (관객 수 1,192명)
- 2019년 전시 총 6회 개최, 총 관객 수 10,312명
- 박관택 개인전-아카데미 «여백:Spinoff form the facts» 02.22~03.23 (관객 수 1,143명)
  - 권세정 개인전-아카데미 «아그네스 부서지기 쉬운 바닥» 04.19~05.18 (관객 수 1,564명)
  - 김인영 개인전-아카데미 «리-앨리어싱» 05.31~06.29 (관객 수 1,370명)
  - 이정형 개인전-아카데미 «화이트노이즈» 07.11~08.10 (관객 수 1,484명)
  - 정희영 기획전-아카데미 «링, 동그라미를 가리키고 사각을 뜻하는» 08.23~10.26 (관객 수 2,338명)
  - 주제기획 «막간극» 11.28~01.18 (관객 수 2,413명)

## [붙임 2] 인사미술공간 전시 외 사업

### □ 프로젝트

- 2006. 인사미술공간 이전 기념 프로젝트 <선택의 조건(Frame Builders)>
  - 1부 워크숍 Textual Matrix: 2006.05.24~05.26, 05.30
  - 2부 전시 Visual Identity: 2006.05.24~07.02
- 2006. 부동산 프로젝트
  - 1부 워크숍 Textual Matrix: 2006.07.06~07.07
  - 2부 전시 Visual Identity: 2006.07.05~07.08
- 2006.08. IASmedia
  - 비디오 및 디지털 영상 작품의 유통 환경을 보호하고, 국내 현장의 비디오 분야를 대안적으로 활성화시키며 비디오 아트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싱글 채널 비디오를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배급하는 전문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 런던의 LUX, 뉴욕의 EAI, 암스테르담의 몬테비디오, 브뤼셀의 Argos를 모델로 삼았다.
  -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은 ① 일반인 및 예술 전문인들의 열람이 가능한 비디오 라이브러리 구축과 지속적인 업데이트 ② 국내 작가들의 우수 비디오 작품을 자체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추천, 선정 후 국내와 해외의 전시, 영화제, 페스티벌, 방송, 교육용 등으로 배급 ③ 국내 비디오 시장의 활성화와 인미공 미디어 아카이브 강화를 위한 비디오 작품 구입 및 자체 소장 ④ 비디오 작품들의 외부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큐레이팅하거나, 자체적인 기획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작품을 소개하고 기타 실험(독립) 영화제 및 해외 기관과의 교류 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 2006~2009 동두천 프로젝트
  - 2006.12. 뮤지엄 애즈 허브 1차 라운드 테이블 심포지엄 (뉴욕)

- 2007.02. 작가 현장 답사 및 토론 (동두천)
- 2007.05. 뮤지엄 애즈 허브 2차 라운드 테이블 심포지엄 (멕시코시티)
- 2007.06. 뉴뮤지엄 동두천 프로젝트 펠로우 현장 답사 및 교육 (동두천)
- 2007.08. 작가 토론회 (동두천, 인사미술공간)
- 2007.10. 워크숍: 김상돈 'Discoplan' (동두천)
- 2007.11. 국방부 주최 캠프 넘블 환경정화계획 발표회 참석 (동두천)
- 2007.12.01~2008.01.24 동두천 프로젝트 소개전 (뉴뮤지엄)
- 2008.03. 작가 토론 (인사미술공간)
- 2008.04. 뮤지엄 애즈 허브 페이퍼 발행 (뉴뮤지엄)
- 2008.05.08~07.06 동두천 프로젝트 본 전시, 1차 공개 자유 토론, 테 오도르 휴즈 강연 (뉴뮤지엄), 공개 포럼 (뉴욕 Nodutdol)
- 2008.06. 2차 공개 자유 토론, 스크리닝 프로그램 (뉴뮤지엄)
- 2008.07.16. «동두천: 기억을 위한 보행, 상상을 위한 보행» 전시 및 토론 & 강연

## □ 워크숍

### - 2005 워크숍

- 2005.07.06~10.24 <작가성장 프로젝트(Artists Upgrade Project)>: 10 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 2005.08.24~09.04 <Good Form>: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수집/전시 하는 행위를 통하여 오늘날 미적 표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일상용품 혹은 예술작품을 통해 경험하는 개인의 미적 체험을 펼치는 워크숍/전시로 구성되었다.
- 2005.10.27~10.30 <이동의 정체성, 정체성의 이동>: 부산에 거주하면서 작업하는 작가들이 포괄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워크숍으로, 이에 참여한 부산 신진 작가들의 경우 아카데미한 담론보다는 그들의 열망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현장에서 프로모션 하는 방법을 세우는 데 목표를 두었다. 중진 작가들의 경우 지역 미술에서 읽히는 문제점들을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의 예를 경험하고자

했다.

- 2005.12.16~2006.01.11 <시제 일치: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의 메시지>: 대안공간 풀과 함께 전시, 스크리닝, 워크숍을 진행했다.

- 2006 워크숍

- 2006.05.02~10.01 <신진 작가의 수첩>: 10명의 작가와 함께 미술 현장에서 필요한 과정을 미리 경험하고,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문 작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작가들이 작업에 대한 주체적인 시각을 정립하고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행정적 근거를 확립하여 보다 분명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2006.05.24~26, 05.30, 05.24~07.02 <선택의 조건\_Frame Builders>: 인사미술공간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어떤 개념적 틀을 짜야 하는지, 또 이것을 관객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 2006.11.10~12.10 <인미공 화두: 생각은 입에서 만들어진다>: 인미공 화두는 매년 시각 문화와 사회 전반의 가장 긴박한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 2006.12.13~12.30 <원서동 프로젝트: 원서 강독>: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원서동의 장소성을 탐구한 프로그램이다. 강연, 워크숍, 답사의 형태로 구성되어 원서동의 역사적 흔적들, 오래된 건물들, 주변 환경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원서동의 미시사를 탐구하고자 했다.

- 2007 워크숍

- 2007.01. <미술인을 위한 글쓰기 워크숍 1>
- 2007.04.09~08.27 <신진 작가 수첩>
- 2007.11.05~12.15 <청취의 기술>: 사운드 아트 워크숍

- 2008 워크숍

- 2008.08~10 <2008 광주 비엔날레 국제 학술행사-서울>

□ 신진 작가기획자 관련 워크숍

- 2009 신진작가 비평 워크숍, 독립큐레이터 기획 워크숍

- 2010~2013 아르코 전문가 성장 프로그램
  - 2010.05. 상반기 전문가 성장 프로그램
  - 2010.06. 상반기 전문가 성장 프로그램 공개 워크숍
  - 2010.10~12 하반기 전문가 성장 프로그램
  - 2010.11. 하반기 전문가 성장 프로그램 특강
  - 2011.04~06 상반기 전문가 성장 프로그램
  - 2011.09~12 하반기 전문가 성장 프로그램
  - 2012.03~05 상반기 신진작가 워크숍
  - 2012.09~11 하반기 신진작가 워크숍
  - 2012.09~12 하반기 신진 기획자 워크숍
  - 2013.04~08 신진작가 워크숍
  - 2013. 인턴 큐레이터 워크숍
- 2014 인사미술공간 작가/큐레이터 워크숍
  - 2014.04~08 작가 워크숍
  - 2014.04~11 큐레이터 워크숍
  - 2015.02~03 인사미술공간 큐레이터 워크숍 성과 보고전
- 2015 아르코 시각예술분야 작가 및 큐레이터 워크숍
  - 2015.09~12 아르코 시각예술분야 작가 및 큐레이터 워크숍
  - 2015.11. 작가 초청 특강 (최병소)
  - 2015.11. 공개 특강 (안소연, <국내미술현장의 새로운 전략과 실천들 : 1990년대 이후 전시 사례>)
- 2016~2019 아르코 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

#### □ 아카이브

- 2005
  - 2005.07.11~08.07 김수범 <Gallery + Diary>
  - 2005.08.10~08.27 유로스크린21 <유로스크린21 in Korea>

- 2005.08~09 에린고브라 <폭식-이미지는 어떻게 자기 분열해 나가는가?>
- 2005.10.21~2006.02.20 <evr Seoul branch>
- 2006
  - 2006.06~08 <오후 다섯 시>: 상설 프로그램
- 2007
  - 2007.05~07 <오후 다섯 시>: 상설 프로그램
- 2008
  - 2008.03.06~06.30 <인미공 라운지: 마차 응접실>
  - 2008. <무빙 이미지 아카이브>

#### □ 기타

- 2002. 국제 심포지엄 도시의 기억, 공간의 역사
- 2016.10.14~10.22 2016 <인사미술공간 미술주간 프로그램 막간 幕間 Interlude>
- 2017.10.13~10.21 2017 <인사미술공간 미술주간 프로그램 막간 幕間 Interlude>